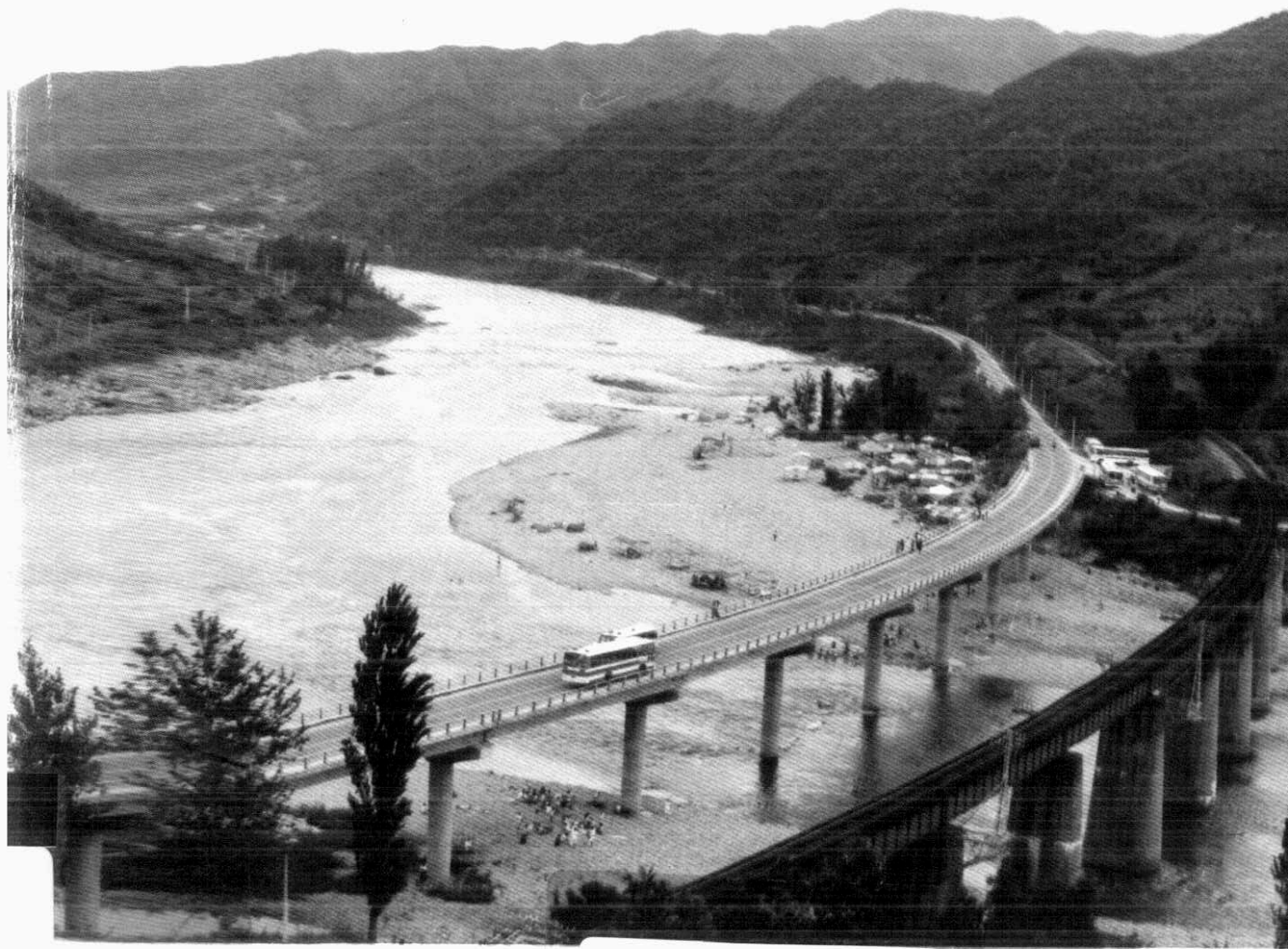


# 내고장곡성

創刊號



국성문화원



0003043

社團  
法人

院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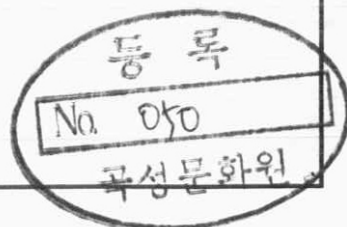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的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的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的 活潑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 도안 설명

• 상, 하 白色은 우리 민족의 바탕인 純粹를, 좌, 우 靑面은 푸른 정조와 푸른 동산을 나타내면서 항구적인 平和를 상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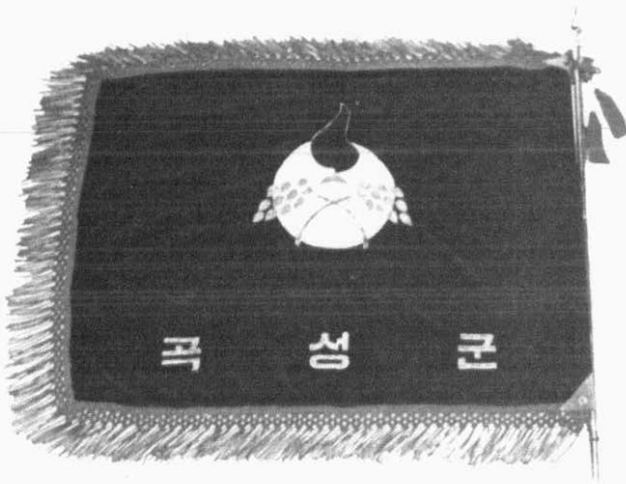
• 중앙의 문화원 마아크는「文」字 5 개가 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협동의 의미와 함께 지역 문화 창달의 구심체임을 나타내고 있음.

\* 각 문화원기는 연합회 회기 도안과 같으나, 하단 시, 군명만 다르게 고안되어 있음.



86年 郡民會館 新築後 移舍 豫定

## 군기해설



1. 봉화는 필승의 신념과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단결을 뜻한다.
2. 습은 단군묘의 상징으로서 군민의 기본정신을 여기에 설정하고.
3. O은 향토방위와 풍요한 사회를 표시하고
4. 벼알은 11개 읍면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5. △는 동약산의 표시이며 정신개척을 뜻하고
6. 밑의 부분은 「谷」곡성의 “고을곡”자를 표시한 것임
7. 색채  
 붉은빛 — 정열과 광명  
 주황빛 — 풍요와 평화  
 은 빛 — 영광과 희망  
 푸른빛 — 젊음과 생동  
 흰 빛 — 순결과 백의

谷城郡廳



## 곡성군민헌장

1969. 4. 25 제정

유구히 흐르는 섬진강을 끼고 밝은 내일을 향하여 뻗어가는 곡성군은 조상이 터를 닦은 정다운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큰뜻을 지키고 받들어온 곡성 군민임을 자랑스러 여기며 내고장의 명예를 더욱 빛내고 살기 좋은 낙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제 헌장을 마련합니다.

- 내고장 발전과 방위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뭉칩시다.
- 법을 지키고 서로 도와 명랑한 환경을 이룩합시다.
- 말은 일에 부지런하고 한푼이라도 아껴 모읍시다.
-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의례를 간소하게 치룹시다.
- 어린이들은 사랑으로 선도하여 알뜰히 가꿉시다.

# 곡성군민가

허 연 작사  
김 형 구 작곡



노 - 령 의 장 한 줄 기 이 곳 에 뻗 어  
섬 - 진 강 맑 은 물 결 굽 이 굽 이 엔  
단 - 군 의 높 으 신 뜻 길 이 받 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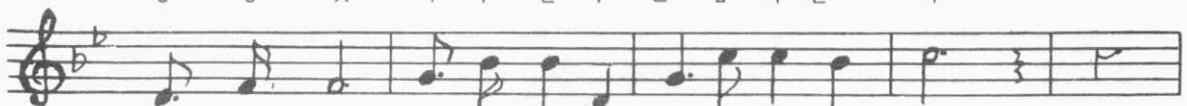
동 약 산 통 명 산 은 맘 도 푸 르 러  
어 디 나 황 금 땅 이 반 겨 맞 는 다  
겨 베 의 어 진 얼 을 지 켜 온 고 장



대 대 로 이 어 받 은 보 금 자 꺾 에  
땀 흘 려 일 한 보 람 알 뜰 히 거 뒤  
설 산 성 한 그 루 의 나 무 들 까 지



오 북 한 우 리 살 림 키 우 며 살 - 자  
아 끼 고 서 로 도 와 복 되 게 살 - 자  
정 성 꺾 가 꾸 면 서 즐 겁 게 살 - 자



어 하 라 둥 게 둥 둥 정 다 운 곡 성



새 날 의 고 동 소 리 울 려 퍼 진 - 다

## 郡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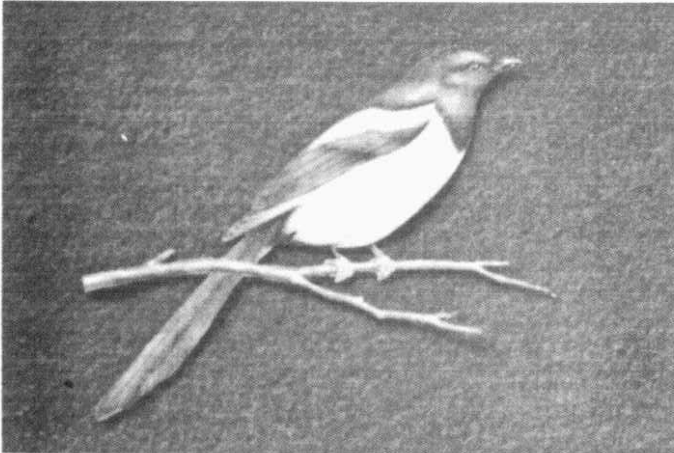


### □느티나무 (槐 木)

Zelrora Serrata Makino

年輪이 明確, 強質로 뒤틀리지 않음. 紋樣과 光澤이 良好, 不汚不濕으로 建築材, 機械材, 農機具材, 樂器材, 船舶材, 彫刻材, 車輪材, 家具材로서 谷城 郡民의 強建, 志操, 多才多能함을 象徵함.

## 郡 鳥



### □까 치

Pica Picajeponica

構巢에 能하고, 益鳥, 吉鳥인 郡鳥로서, 鵲橋愛情, 鵲聲吉調, 鵲吉音信 등은 谷城 郡民의 사랑 즐거움의 소식등을 象徵하는 것이라 한다.

## 郡 花



### □개나리

For Sythia Koreana

建國樹, 藥用으로 많이 쓰이며 黃純色은 谷城 郡民이 繼然無垢, 繼然愛護, 平和愛護, 情緒醇化를 象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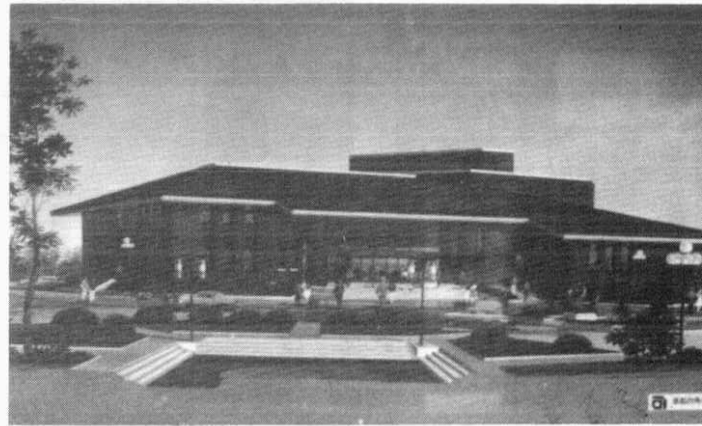
# 전두환대통령 각하 특별 지원 사업



85. 9 .25일 전두환대통령 각하 곡성군 방문  
시 하사금 : 군민회관건립비 6억원, 콤바인 1  
대(곡성읍장 관리)장선마을 소득사업자금 4천  
만원(무이자 융자 : 한우 60두 사육)

## 谷城郡民會館新築

- 位置 : 谷城郡谷城邑 邑內里 776-11外 7筆地
- 面積 : 9,959m<sup>2</sup>(3,012坪)
- 建物
  - 延面積 : 2,233m<sup>2</sup>(676坪)
  - 規 模 : 地下1層, 地上2層
  - 構 造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일부 기와>
- 主要用途
  - 대회의실(군민 정신 교육장)
  - 소회의장(예식장 등)
  - 공공 단체 사무실
  - 향토 문화 전시관



## 곡성군 주요 사업 현황

(單位 : 百萬元)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	備 考
郡民會館新築	1棟 650坪	665	'85. 9 .25 閣下本部 巡視時支援事業으로 600百萬元 은 閣下 支援會 50百萬元은 道知事支援金임. 事業은 86년에 竣工豫定임('85未着工)
文化財 補修	3 個所	100	泰安寺, 道林寺, 龍山齊및 德陽祠
肢体不自由兒收容施設 新築(삼강원)	1棟	200	
耕地 整理	2 個所 98ha	409	農所地區, 石谷地區
農業用水事業	8 個所	310	
泰安寺 進入路 擴張	4 km	100	
面所在地 道路鋪裝	5 個所 3,580m	320	閣下支援 190
立面齊月道路鋪裝	3 km	200	
谷城進入路擴張鋪裝	1 km	150	
새마을가꾸기事業	46마을	50	
새마을廣域圈事業	4 圈域	144	
計		2,648	

## 곡성경찰서 현대식 청사 준공

- 준공일 : 1984. 12. 19
- 총예산 : 559,059,000
- 규 모 : 연건평 629.92평(지하 1층, 지상 3층)



### 곡성경찰서 자랑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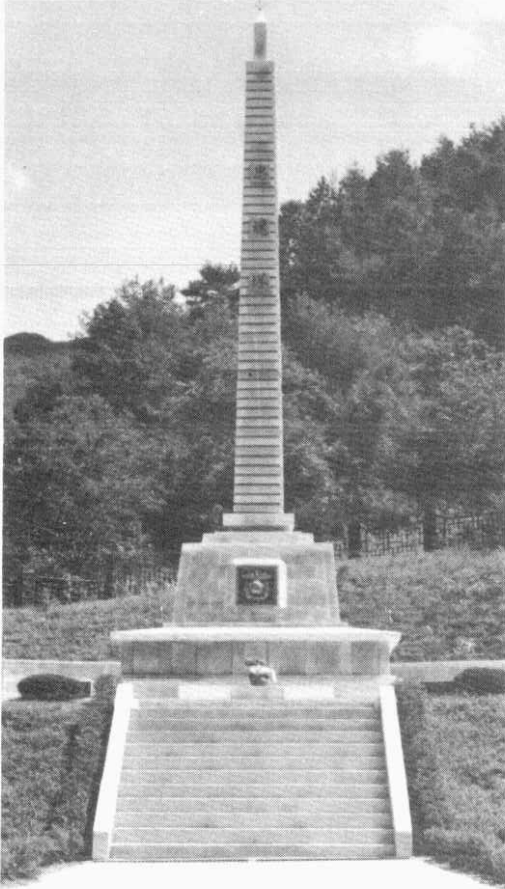
### 태안사 전투

#### ● 곡성 경찰서에서 수행한 업적

6·25 당시 영남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토가 적의 침공으로 초토화되고 파죽지세의 적세력에 의해 강점당하게 된 정세하에, 오직 곡성 경찰서만은 당시 한 정일 곡성경찰서장과 230여명의 경찰관이 다른 지역에서 패주하다 규합된 290여 명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고 '본인들의 목숨 보존을 위해서 우리 대열을 이탈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공생 공사의

공동 운명체로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중요한 분기점에 있으니 각자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지휘관의 비장한 각오를 표명하였던 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이 한데 뭉쳐 죽기를 맹세하고 싸워 이기자고 소리높여 외쳤으며, 여기에 힘을 얻은 지휘관 이하 전원은 사기충천하여 작전거점을 태안사로 결정하고 7·24 태안사에 입산, 하루 두 끼의 주먹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필승을 다지는 승전가를 작사 작곡하여 부르는 등 전의를 고취하는 일방, 거점 주변의 경계를 철통같이 하고 편의대를 편성, 적진 깊숙히 투입, 적정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오던중, 적 정규군 제 603기갑 연대 병력이 7·29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를 경유, 순천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유력한 정보를 입수, 열세한 병력과 장비를 무릅쓰고 지휘관 이하 전 병력이 혼연





태안사 충혼탑

일체가 되어 통과 지점 “목”을 차단하고 포진중, 싸이드카 척후대를 선두로 대병력이 아무런 저항없이 망연히 침공해 오는 것을 선제 공격하여 약 6 시간여의 격전 끝에 적의 중심 세력을 와해, 대타격을 가한 결과 생포 3명, 사살 52명, 싸이드카 5대를 노획한 대 전과를 올렸으며, 적은 구레방면으류 패주하였다.

그후 적은 무적 강군임을 과시하며 저항 세력 없이 남침해 오다가 대손상을 입은 보복 작전으로 동년 8·6 미명을 기하여 연대 병력으로 태안사 진지를 공격함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으나 월등한 병력과 장비에 중과 부적으로 이 전투에서 고 남 제평 경감 외 47위의 장렬한 전사자를 냈던 것이다.



## 반공 교육장으로 활용

위 태안사 전투 시 9·28 수복 이후 매년 8.6에 곡성경찰서장 주관하에 유족들을 모시고 죽곡면 원달리 소재 태안사에서 위령제를 거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세인의 무관심과 유족 및 회원들의 노쇠 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 전라남도지사, 경찰국장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하에 1984. 4. 1, 총 공사비 2억 6천만원을 들여 연건평 1,130평에 높이 15미터의 화강암 충혼탑과 기념관 10평 짜리 1동, 충의문 1동, 공적비 1기, 주변철책 262미터를 건설하여 85. 8. 6일에 준공을 보아 이와 같은 성스러운 전적지를 산 반공 교육장으로 승화시키고 이 지역을 정화해서 널리 홍보함으로써 잊혀져만 가는 6·25 참상과 최후까지 싸운 충절의 애국관과 국가관을 고취시켜, 85년 한 해만 해도 266회에 2,659명의 일반 방문객이 방문하여 산 반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目 次

내고장곡성

창간호 / 1985

創刊辭 · 地方文化의 水準向上을 위해 ..... 金吉榮 12

企劃連載 · 내 고장 谷城

- 우리 마을의 由來 · 谷城邑編 ..... 13
- 우리 고장의 民俗 · 짱치기 ..... 16
  - 正月보름 액막이 놀이 ..... 18
- 우리 고장의 傳說 · 딸섬 ..... 20
  - 鄭甲山窟 ..... 20
  - 신선바위 ..... 22
- 고장의 빛나는 얼 · 石田 柳健永선비 ..... 23
  - 국가 보훈자 名單 ..... 25

자랑스런 고향사람들

- 國樂人 · 一山 金命煥 ..... 26
- 技能保有者 金點順 ..... 26
- 体育人 · 國家代表 데니스감독 金文一 ..... 27
  - 洋弓의 신데렐라 徐香順 ..... 28
- 演藝人 · 個性的 演技者 李斗燮 ..... 29

墨 香	• 雲庵 趙 鏞 敏... 30	• 愚石 趙 國 濟... 33
	• 松哉 李 芳 實... 31	• 一粟 吳 明 燮... 33
	• 儒泉 徐 鍾 堅... 32	• 景山 朴 熙 錫... 34
	• 華岡 李 英 雨... 32	• 沃耕 李 在 鎬... 34
	• 谷城書藝院 ..... 36	• 小龜 金 三 錫... 35



題字·雲庵 趙 鍾 敏  
目次書·景山 朴 熙 錫

- 探訪取材 • 玉果高等學校 趙龍沂 校長 ..... 37
- 우리 谷城에도 名門高等學校가 있다 ..... 趙龍沂 40
- 出鄉人의 모임 • 友谷會 ..... 43

**故鄉을 주제로 한 隨筆 6人選**

- 맑은 물을 그리며 ..... 安泰然 44
- 황새야 돌아 오라 ..... 임춘성 47
- 故鄉의 少時를 되돌아 보며 ..... 車京春 49
- 故鄉頌 ..... 李起和 54
- 故鄉을 사랑하는 마음 ..... 丁在鉦 56
- 사랑의 가치관 ..... 崔鍾烙 58

**論壇· 鄉土文化 發展 ..... 金學瑾 62**

**特輯· 敬老孝親 글짓기大會 入賞作品**

-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자...곡성종교 1 서합식 67
- 가정에서의 경로효친 .....곡성여중2 오현순 68
- 웃어른 공경 ..... 곡성중앙국교6 정민주 70

- 의절의 고장 곡성 ..... 金學瑾 72
- 谷城郡觀光案内圖 ..... 79

- 화보** • 곡성문화원 2 • 곡성군청 3 • 곡성군민현장 4  
 • 곡성군민가 5 • 대통령각하특별지원사업 7  
 • 곡성경찰서 자랑거리 8

- 編輯後記 ..... 80



## 地方文化의 水準向上을 위해

谷城文化院長  
金 吉 榮

늦은 感이 있으나, 第五共和國이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 傳統文化의 宣揚을 위해 政府가 앞장서 全國文化院을 中心으로 活性化하고 있음 을,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나라의 文化란 결국 地域 文化의 總和임을 생각할 때, 地方文化의 올바른 발굴, 계승, 육성 문제는 곧 나라 전체의 文化暢達과 직결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未洽하나마 우리 地域의 里名, 由來, 民俗, 傳說 等の 정신적 유산과, 내 고장을 빛 낸 人物, 元老 書藝家를 비롯한 文化界 人士들을 포함해서 이 地方 文化의 편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本院은 이 地方 文化의 수준을 向上시키는 데 心血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本誌 創刊에 後援을 아끼지 않으신 機關, 社會團體와, 총망 중에도 玉稿를 주신 先輩 諸賢 여러분께 感謝의 뜻을 표합니다.

谷城郡民 모두의 家庭에 幸福과 光榮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 우리 마을의 由來 / ①谷城邑 編



谷城邑 全景

### ○邑内里

高麗 辛巳末年부터 谷城縣의 邑地로 되어 當時 監務(現 郡守)가 本里에 居住하였으며, 朝鮮朝 太宗 13年 乙未(1413年)에 縣監으로 改置됨에 따라 亦是 縣監이 本里에 居住했고, 光武 3年 乙亥(1599年)에는 縣이 郡으로 改稱케 됨으로 縣更 마을로 되었다. 1941年 行政區域 變便에 따라 英雲里를 本里에 編入하고, 여우내(英雲里) 東便, 西便으로 分洞하던 것을 그후 4個區(一區里는 現 1,2區, 2區里는 現 3,4區, 3區里는 現 5區, 4區里는 現 6,7區)로 編制했고 近來에 와서 7區里로 改編, 現在에 이르렀다.

### ○鶴亭里

本 一區里는 200餘年 前에 全州 崔氏가

定着하고 洞名을 鶴林洞이라 稱하고, 現在 9代孫에 이르면서 大宗을 이루며, 二區里는 500餘年 前에 咸陽呂氏가 定着하여 洞名을 栗亭이라 稱하고 現在 7代孫에 이르며, 그후 慶州人 金正喆氏가 純祖 19年(1819年)에 曳山面 新基里에서 入住하여 現在 6代孫(金永宅)에 이른다. 洞名은 鶴林洞과 栗亭里를 廢合, 1914年에 鶴亭里로 改稱케 되었다.

### ○校村里

本里는 谷城鄉校가 設置되면서 그 밑에 1家口가 定着했던 것이 漸次 마을을 形成케 되었고, 鄉校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校村里라 稱하게 되었다. 隣近에 竹林이 茂盛했던 竹峰里와 合하여 1914年에 校村里로 通稱케 되었다.



○竹洞里

高麗朝 中葉에 徐氏가 開村하였다고 傳해지고 있는데, 그후 全氏, 丁氏, 朴氏가 居住하면서 하나의 部落이 形成되었다고 하며, 마을 뒤 溪谷에 社稷壇이 있어 朝鮮朝時代에 縣令이 祈雨祭를 지냈다고 한다. 防竹洞이라 부르던 村名이 1914年 行政區域 變更으로 竹洞里로 改稱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新月里

지금으로부터 約 100年 前에 達成 徐氏인 徐善達氏가 定着하여 그 孫이 現在도 居住하고 있으며, 道上面 新興里와 月坪里가 1914年 行政區域 變更으로 洞名의 윗글자를 따서 新月里로 改稱코 現在에 이르고 있다.

○月峰里

지금으로부터 300年 前에 安氏가 居住했다고 傳하며, 約 200年 前에 金海金氏인 金善達氏가 定着케 되어 現在 8代孫에 이르고 있다. 道林寺 入口에 딱밭 (楮田)이 많고, 이 딱으로 製紙를 하던 楮田里와 新平里 마을이 廢合하여 1914年 行政區域 變更에 따라 月峰里라 改稱코 現在에 이르렀다.

○舊院里

本里(1區)는 全州李氏와 利川李氏가 먼저 入住했다고 하며, 約 200年 前에 漢陽 趙氏인 趙貴相氏가 和順 北面으로부터 入

住하여 現在 8代孫(趙吉童)에 이르며, 1780年頃 朝鮮朝正祖때 慶州金氏 鷄林君(金稠)의 16代孫인 金星德氏가 淳昌으로부터 入住 定着하여 現在 7代孫(金鍾湊)에 이르고 있다. 2區里(平地村)는 300年 前에 宋氏가 定着했다 하며 그후 水原人 白維精氏가 入住하여 現在 10代孫에 이르고, 約 250年 前에는 興德人 張俊襄氏가 入住하고 現在 9代孫으로 大宗을 이루고 있다. 洞名은 舊中里(平地村) 坊川洞으로 稱하던 것을 廢合, 1914年에 舊院里로 改稱케 되었다.

○西溪里

興德張氏인 張啓福氏가 150餘年 前에 入住하여 現在 6代孫(張皇基)에 이르고, 이보다 먼저 密陽朴氏와 海州吳氏가 定着했다는 說이 있다. 洞名은 道上面 新基里이던 것이 上東幕里로 改稱케 되고, 1914年에 邑의 西쪽에 있는 溪谷마을이라 하여 西溪里로 改稱케 되었다.

○大坪里

지금으로부터 約 480年 前에 晋州姜氏가 入住, 部落을 形成하였다. 그러나, 現在 그 孫은 全無하고 1498年 燕山朝 戊午에 文化柳氏인 柳輯氏가 定着하여 現在 14代孫(柳龍來)에 이르고, 2區里는 密陽朴氏인 朴時煌氏가 1715年 乙未에 入住, 現在 7代孫(朴興來)에 이르며, 300餘年 前에는 慶州冰氏인 冰禮覽氏가 梧谷 雙龜로부터 入住하여 現在 孫이 50戶에 達한다. 洞名을 ‘그심예’라함은 錦曳에서 나온 말이

다. 大坪 3 區里(馬坪)는 地形이 馬形局이라 하였으며, 1628年 仁祖 6 年에 延安李氏인 李賢氏가 定着코 現在 그 孫이 14代(李鍾大)에 이르고 있다. 洞名은 大里와 馬坪里를 合하여 1914年에 大坪里라 改稱케 되었다.

#### ○新里

延安李氏인 李賢氏가 明宗(1600年頃) 때 光州 大峙洞에서 入住, 定着하여 現在 13代孫(定勳)에 이르며, 그후 南平文氏인 文守元氏가 入住하여 現在 7代(喜生)에 이르고, 지금은 全州李氏, 密陽朴氏, 金海金氏, 金寧金氏 등이 居住하고 있다. 部落名을 '새물' 이라고 稱함은 隣接部落에 比하여 늦게 說村되었기에 새로 생긴 마을, 卽 '새마을' 이 '새말' '새물'로 稱하게 되고, 漢字로 新里라고 定해졌다고 한다.

#### ○東山里

善山金氏인 金成孫氏가 1560年頃인 明宗 때 定着하여 現在 15代孫(金一述)에 이르고 洞里的 大宗을 이루며, 光山金氏인 金萬熾氏는 1710年頃인 肅宗朝때 入住하고, 같은 무렵에 玉川趙氏인 趙尚氏가 入住하여 現在 그 孫들이 살고 있다. 平野地인 磐津江邊에 우뚝 솟은 東山이 있기에 洞名을 東山里라 稱하게 되었다고 한다.

#### ○長善里

500餘年 前에 張經世代가 說村하였다고 하며 現在 19代孫(淳鐸)이 居住하고 있으며, 470餘年 前에는 南平人 文尚贊氏가 入

住하여 16代孫(珪鎭)에 이르고 그후 高興人 柳啓祥氏가 入住, 現在 13代孫(駿相)에 이른다. 그후에 慶州金氏, 晉州姜氏, 淸州韓氏 등이 거의 같은 무렵에 入住하여 現在 各 9代孫에 이르고, 金海金氏, 全州李氏, 密陽朴氏 등은 現在 各 7代孫에 이르며, 그외 10餘 姓氏로 마을을 이루고 있다. 元曳山面 管下였던 本里는 1914年 行政區域 變更에 依하여 全北 南原郡 金岸面 石田里 一部를 編入코 谷城邑에 編入, 1·2 區로 分區 現在에 이르렀다.

#### ○新基里

1 區里는 交通手段이 發達하기 以前에는 나룻배를 利用하는 나루터가 있는 곳이라 津村里로 呼稱하였고, 2 區里는 350餘年 前에 利川徐氏가 東幕(舊院里)에서 入住하여, 現在 13代孫(鍾永)에 이르고, 3 區里는 燕山朝 때 大坪里에 定着했던 文化柳氏인 柳輯氏의 孫이 大坪里로부터 入住하여 現在 部落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 400餘年 前에 慶州金氏인 金永春氏가 定着코 9代孫에 이르다가 栗亭里로 移居했다 한다.

#### ○猫川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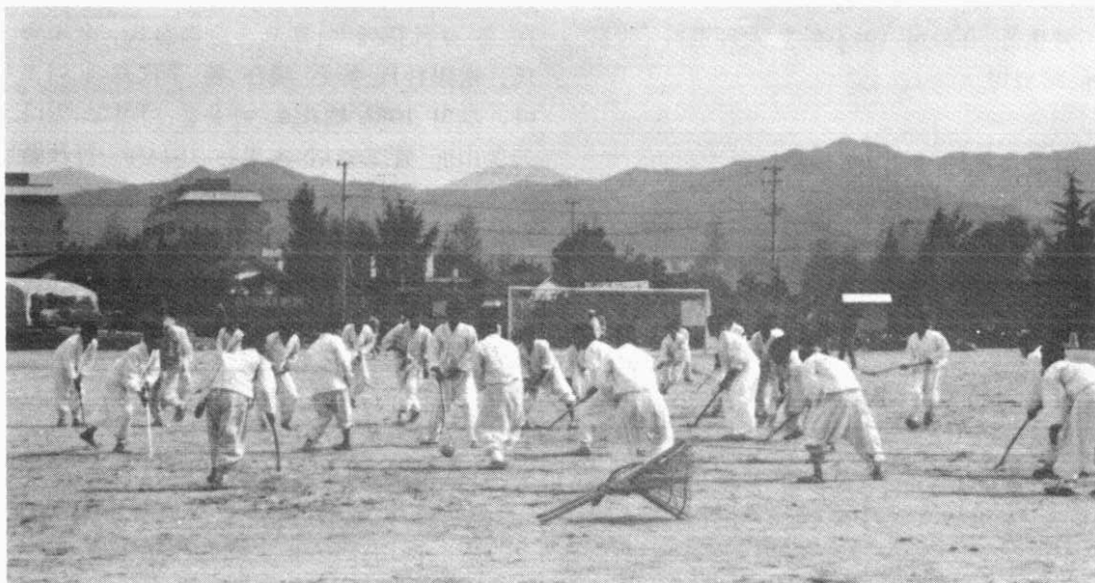
1620年頃 朝鮮朝 光海君 때 設村되었다고 하며 高宗末期에는 300餘戶에 달하는 大部落이 形成되었으나, 猫川의 氾濫이 藉藉하여 大舉 邑으로 移居함으로 部落이 漸漸 작아졌다고 한다. 梧谷面에 屬해 오다가 1973年 7月 1日 行政區域 變更으로 인하여 谷城邑에 編入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 우리 고장의 民俗놀이



제 5 회 남도문화제 최고상 수상



## 짱치기 유래

기원은 글안(契丹) 여진(女眞) 등 북방 민족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본다. 형초세 시기(우리 나라 풍속을 기록한 책)에 기록된 격구(擊球) 또는 시구지희(施求支戲)의 變形으로서, 新羅때 북방에서 (中國) 도입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 가장 활발하였다고 하며, 高麗와 李朝에 宮中樂舞인 포구락(抛球樂)이 여기서 유래되었고 李朝正祖때에는 二十四般武藝로 정한바 있는 이 격구(擊球) 또는 타구(打球)는 주로 上流

층의 놀이였는데, 조선 王朝 중엽 이후 쇠퇴하여 그 餘流가 民間으로 흘러 짱치기라는 민중오락으로 변형되었다고 생각되며 이 타구(打球)는 바다 건너 日本에까지 전승되어 日本國 指定 無形文化財(加賀美流騎馬打球)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놀이는 日本의 변두리 東北地方의 青森縣 八戶市 新羅神社例祭때 奉納行事로 지금도 1년에 한 차례씩 行하여지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건너간 축국 또는 打球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山間地方에서 많이 성행되어 왔다고 전하며, 우리 道에서는 谷城, 求禮, 昇州 에서 흥겹게 성행하였다고 하며, 이곳 谷城에서는 李朝중엽 이후 농부들이 나무를 하기 위해 지계를 지고 산에 가다가 양지 바른 곳에 쉬면서 추위를 이기고 여가를 이용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놀이로서 당시에는 나무옹이를 공같이 다듬거나 새끼를 말아 만든 공 또는 솔방울을 대용하기도하고 짱매는 나무가지가 달린 윗부분(받침대)을 이용하기도 한다. 짱치기 놀이는 1930년대까지 마을간 대항으로 또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기도 하여 오다가 서구에서 도입된 운동 경기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 고장에서는 玉果面武昌里石谷面는 파리 곡성을 舊院 竹洞 鶴亭등지에서 盛行하였고 지금도 마을 뒤에 공마당이라 불리어져 오고 있으며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다.

## 경기 방법

옛날에는 네모난 논이나 밭, 그렇지 않으면 넓은 잔디밭에서 가로(橫)를 세로(縱)보다 배나 길게하여 가운데에 중앙선을 긋고 양쪽 경기장 끝선에는 지계를 벗어나서 풀대를 만들고 지계 데구리를 이어서 풀선을 만들어 경기장을 만들고

①중앙선에는 양편의 주장과 부주장 각 3명씩이 각각 대치하고 있다가 심판이 공을 위로 높이 던지면 양편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경기가 시작되어 서로 자기편끼리 연락하여 상대편 골문에 넣게되면 한

점을 얻게 된다. 이때 공을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거나 장대로 사람을 치는 것을 반칙으로 하며, 반칙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은 피리를 불며 큰소리로 「어졌다」고 하며 「라인」밖으로 나가면 역시 심판은 피리를 불며 「나갔다」 소리질러 경기를 중단시킨다. 옛날용어는 「아웃 : 서리」 「골인 : 덩」 「반칙 : 어릴털털」 「이겼다 : 멍멍재개재개」란 용어를 곡성 竹洞지방에서는 사용했다고 한다.

②또 공을 땅에 흙을 파고 묻어놓고 양쪽 주장 선수가 파내어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③야구식으로 두 편으로 나누어 한 사람이 공을 던지면 상대편 사람은 장대로 공을 쳐서 일정한 라인선 밖으로 쳐내면 한 점을 얻는 경기로 다득점순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發掘者 : 現 順天教育廳 中等獎學士 金學瑾)

# 우리 고장의 民俗놀이

## 正月 대보름 액막이 놀이

### 解 說

毎年 正月 대보름이면 그해 마을 사람들의 病害, 火災, 旱害, 風害等 各種 災殃으로 부터 액운을 막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洞口에 장승과 솟대를 세우고, ① 堂山祭를 지내고 民俗놀이로 ②햇불을 들고 다리밟기 ③客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짚섬으로 만든 징검다리 걷기 ④액막이 옷 불사르기 ⑤액막이 연 날리기 ⑥ 액막이 디딜방아 훑치기 ⑦액막이 질굿놀이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의 和合과 協同心을 불러 일으켰으며, 1940年代에 이르기까지 谷城郡 谷城邑 竹洞里를 中心으로 傳承되어온 民俗놀이이다.

#### ○堂山祭

마을앞 堂山나무에 禁줄을 치고, 솟대 2개, 하나는 장대위에 기러기를 올려놓고, 다른 하나는 벧자루를 달아놓고 장승 男, 女 둘을 세운 옆에 祭床을 차려놓고 약식 堂山祭를 올릴때 祝文 대신 土地之神에게 祝願歌를 불러, 巫堂으로 하여금 액막이춤을 추어 약식 堂山祭를 지낸다.

#### ○햇불들고 다리밟기

햇불을 들고 마을앞 큰 다리를 자기 나 이만큼 왕복하며 男女가 다리걷기 놀이를 즐긴다.

#### ○짚섬으로 만든 징검다리 걷기

客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不淨을 막기 위해 짚섬으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그 속에 모래를 채우고 엽전이나 주화를 묻어 놓고 걷게 한다.

#### ○액막이 옷 불사르기

액막이 民俗놀이 하나로 옷을 만들어 불사르면서 呪文(天地神明이여 금년 우리집 가족들의 災殃을 모두 불사릅니다. 훨훨날아가거라)을 하면서 다른 한사람은 제웅(짚으로 만든 인형)을 불태운다.(옷에는부적을 붙인것과 사람이름 또는 “액”字 글씨를 붙은 글씨로 쓴 것을 불태운다.)

#### ○액막이 연 날리기

연에 부적을 붙이고 글을 써서 제일 높이 멀리 띄운 사람을 심판이 壯元으로 뽑아, 경연 참가자들이 人馬를 태우고 農樂을 치며 마을로 돌아온다.

#### ○액막이 디딜방아 훑치기 놀이

방죽골마을 사람들이 정월 14일 밤에 밤쟁이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디딜방아를 지키는 婦女子들이 즐기고있는 틈을 利用, 날래고 힘센 婦女子들이 새끼로 女子를 묶어 놓고 디딜방아를 떼어 방아실 밖으로 꺼내 놓으면 男子들이 달려들어 끌고 오면서(이때 묶인 女子들이 “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면 잠을 자던 마을사람들 1~2명이 뛰어나와 말리나 한번 방아가 집 밖으로 나오면 막을 수 없게 된다.)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마을 入口까지 끌고와 女子의 고쟁이를 방아고에 씌워 새끼로 묶어 세운 뒤 農樂을 울리며 술을 마시며 즐긴다.(그후 며칠후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게 디딜방아를 빼앗긴 마을 사람들(밤쟁이)이 夜陰을 통해 고쟁이만 벗겨놓고 찾아가는 놀이이다.)

#### ○액막이 農樂굿(左道農樂)

당산굿, 우물굿, 다리굿, 길굿 등 액막

이곳 등을 치면서 災殃을 막는 곳거리 農樂  
을 즐기는 놀이다.

### 堂山祭 祝願歌

해운은 壬午年이고  
달은 잡아들어  
正月이 上元이라  
날로 잡아 보름날은  
丙子午子 일이다.

어디서나 正房의 土地神님은  
앉아도 三千里  
서도 三千里  
民國萬里 晝夜千里  
굽어보시는 皇帝土地之神

降臨하시라고 이 臣下직 사람들이  
모두 각기 各姓받이  
精誠 모아 祝願하네  
土地之神 모실 때에  
더럽고 미치한 부정부터 조심하네  
수심 부락 수백 가구에  
명정 어찌 가리오며  
부정을 어찌 가리오까마는  
보는 것도 부정이요  
듣는 것도 부정이라  
목욕재계 의복 빨아 입고  
殺生喪主罪人 제외놓고  
개고기 닭고기 먹은 사람  
빼어놓고  
男女老少 모두 나와

土神께 비나이다.  
今年 액은 없애 주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네  
살기 좋은 이내 마을에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영명하신 土地神께  
비읍니다. 비읍니다.  
무릎이 닳도록 빌고 빌어  
祝願합니다.

### 디딜방아 훑치기놀이 노래

어덜덜덜 디딜방아야	응아차 응아
“ 잘도 간다	“ ”
“ 잘도 간다	“ ”
“ 우리 마을 잘도 한다	“ ”
“ 밭도 맞추고	“ ”
“ 호홉도 일치하네	“ ”
“ 잡귀도 쫓고	“ ”
“ 병마도 쫓세	“ ”
“ 가뭄도 쫓고	“ ”
“ 풍년 기원하세	“ ”
“ 아들 낳고	“ ”
“ 딸도 낳세	“ ”
“ 과일도 풍성	“ ”
“ 우리 마을 낙원 일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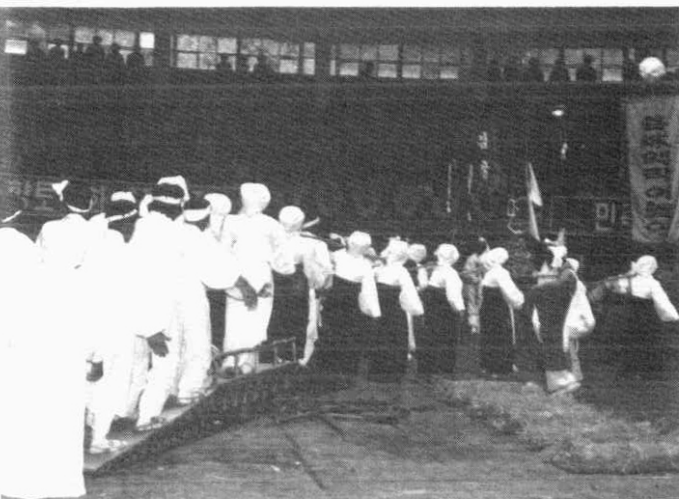
### 연날리기후 人馬타고 돌때 부르는 노래

皇帝之神 今年 액때임이나 하소  
(나무아미타불) - 후렴  
山神之神 “ ” “ ”  
( “ ” )  
土地之神 “ ” “ ”  
( “ ” )

### 다리밟기 노래

- ① 밟자 밟자 다리를 밟자  
어디골 다리가 방죽골 다리세
- ② 밟자 밟자 다리를 밟자  
한번 건너면 병이 없어지고
- ③ 밟자 밟자 다리를 밟자  
두번 건너면 長壽하고
- ④ 밟자 밟자 다리를 밟자  
세번 건너면 極樂에 가네
- ⑤ 밟자 밟자 다리를 밟자  
나이대로 밟아보세

發掘者：順天教育廳中等獎學士 金學瑾



## 딸 섬

곡성읍 동산리 백사장에 바위로 된 섬이 있다. 이 섬을 일러 딸섬(판섬)이라고 한다.

마을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한 처녀가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해, 몹시 가뭄이 들어 끼니마저 어렵게 되었다. 끼니를 자주 거르는 어머니를 뵈기가 민망스럽고 죄스러운 처녀는 할수없이 강 건너 마을로 품팔이를 다니게 되었다. 강을 건너 일을 나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붓물이 터지듯 쏟아진 비는 삼 시간에 강물을 거센 홍수로 바꿔 놓았다. 일을 마친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가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강물은 강뚝을 넘을 만큼 범람하고 있었다. 처녀는 발을 동동 굴렀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머니는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쇠약하신 어머니가 끼니를 또 거르

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다. 처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마음을 정하고는, 헤엄이라도 쳐 볼 생각으로 강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처녀는 그만 거센 물결 속으로 휩쓸리고 말았다. 그러나, 천행이랄까? 얼마 뒤 정신을 차려 눈을 뜬 처녀는 자기가 어느 바위 위에 누워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바위는 동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처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마을을 건너다 보았다. 마을은 이미 물에 잠겨 흔적도 없었다. 처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바위를 치며 통곡을 했다. 그러다가 힘이 다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뒤로 그 처녀의 효성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섬 이름을 딸섬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와전되어 판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 鄭甲山窟

鄭甲山窟 谷城邑 西溪里 動樂山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谷城邑에서 三岐面으로 넘어가는 괴티재(猫峠)의 右側 산 중턱에 높이 20m 가량의 암벽이 있고 그 암벽 사이로 6m 가량의 폭포가 있다. 그 폭포에 이

르러 오른쪽을 보면 약 3m 가량의 낮은 암벽에 삼각형으로 뚫린 鄭甲山窟이 보인다. 폭 5m~3m, 깊이 6m 가량의 이 굴은 밖에서 보기에 여자의 생식기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굴은 깊은데, 갈수록 좁아

저서 높이 80cm 가량의 통로가 4~5cm쯤 계속되다가, 10여명 가량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타난다. 그러나, 끝이 없어 南原과 慶州까지 이어져 있는데, 팔뚝만한 지네가 도사리고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鄭甲山이 이곳에 언제쯤 살았는지는 아는 이가 없다. 다만 이 글에서 鄭甲山이라는 도둑이 줄게 10여명을 데리고 살면서 괴티재를 넘는 행인들의 뭇짐을 털었다는 얘기만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굴 이름이 鄭甲山窟인 것이다. 이 굴 속에는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고, 그 샘에는 은으로 만든 주발 뚜껑이 물그릇으로 떠 있었으나, 누가 이 주발 뚜껑을 가지고 나오려면 굴 입구에 도사리고 있던 지네가 덤벼들어,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한다. 西溪里 마을이 180여 년 전에 형성되었으므로, 鄭甲山은 그 이전에 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鄭甲山은 힘이 장사이고 성격이 독살스러웠는데, 全北 南原 일대까지 출몰하며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鄭甲山은 주로 이 괴티재를 지키고 있다가 뭇짐 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재물 약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행렬 약탈 뒤에는 新婦까지 납치해 욕을 보인 뒤, 길 옆 웅덩이에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웅덩이를 각시沼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각시沼는 국도 옆 天水畓 사이 계곡

에 있다. 그런데, 이 각시沼 서쪽 괴티재 왼쪽 산기슭에 鄭甲山 어머니의 墓所가 있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鄭甲山의 행패를 들은 한 道士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秘方을 일러 주었다. 즉 鄭甲山이 그토록 신출귀몰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先祖가 ‘산고양이 穴’에 묻혀 있기 때문이니, 이를 찾아 파버린 다음 쑥불지짐으로 그 地氣를 없애 버리면 鄭甲山이 힘을 못 쓸 것이라는 것이었다. 住民들은 이 말을 듣고, 鄭甲山이 고양이를 닮은 괴티재(猫峽)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괴티재 일대를 뒤진 결과, 鄭甲山의 어머니 墓가 부근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발견 즉시 墓를 파고, 그 뼈에 쑥불지짐을 해버렸는데, 신통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도둑질을 하던 鄭甲山은 갑자기 맥이 풀리면서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로부터 鄭甲山 일당의 행패가 끊겼는데, 鄭甲山窟에는 이들이 훔쳐다 놓은 금, 은, 보화가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그러나, 예의 지네가 길을 막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 신선바위



신선바위는 곡성읍 월봉리 동악산에 위치하고 있다. 크기가 집채만 한데다 윗면이 평평하여 예로부터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즐겼던 곳이라 한다.

날이 가물어 비가 오지 않으면 신선 바위에 가서 기우제를 올린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고 한다. 손때(무당에 가까운 신병이 있는 사람)가 내린 사람이 바위 밑에 자생하고 있는 신우대를 꺾어 흔들며, “며칠날 비가 오겠습니까? 1일에 오겠습니까? 2일에 오겠습니까? 10일에 오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날은 대를 든 손이 좌우로 움직이고 비가 내릴 날은 상하로 흔들리게 되는데, 그 날엔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예언한 날이 너무 멀어서 기다릴 수가 없을 때에는, 사람들은 해괴한 방법으로 비를 내

리게 한다. 즉, 신선바위에다 똥, 오줌을 누고, 질탕하게 술을 마시며, 부인들이 뛰고 노는 것이요, 그러면 신이 노해서 뇌성번개를 치게 하면서 큰 비를 쏟게 한다. 그 효험은 매우 빨라서, 기우제를 마친 사람들이 미처 집에 당도하기 전에 억수같은 비가 내린다고 했다. 이러한 행사는 생활이 곤궁한 탓으로 신을 흠족하게 해 줄 만한 음식 마련이 어려워, 술수로써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이 다른 지방의 전설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라고나 할까?

또한, 이 바위 아래에 샘이 있는데, 그 물로 밥을 짓고, 촛불을 켜 놓고 밤 12시~1시경까지 기도를 드리면 옥동자를 낳는다고 한다.

# 創氏改名에 抗拒, 自決한 石田 柳建永 선비



“  
어찌 先祖를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가 亡하고 이제 姓氏마저 바꾼다면,  
”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居住 小石 柳桂烈 祖父 石田 柳建永 선비는, 勉庵 崔益鉉先生이 淳昌에서抗日義兵을 일으킬 當時, 이에 가담하여 勇鬪하신 분이다.

石田은 그후 石田書院을 開設, 少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日警의 要查察人으로 每日같이 檢束을 받아가면서도 生死를 걸고 抗日思想教育을 통해 民族精神을 고취시켰다. 또한 틈만 나면 文友들과 救國의 信念을 불태웠고, 田畝를 팔아 獨立運動資金을 대기도 했다.

日帝는 當時 韓民族의 뿌리를 완전히 말살하고자 創氏改名을 宣布했다. 이에 石田은 全國을 巡廻하면서 反對運動을 펴는 한편, 南次郎總督과 經學院, 中樞院等에 創氏改名의 不當性을 들어 즉시 取消하라는 항소문을 直疎하였으나, 끝내 1940年을 기해 施行되기에 이르자 石田은 親知와 子孫들에게 ‘創氏改名은 決死反對해야 한다고 力說하고 드디어 創氏改名은 禽獸나 하는 짓이다. 庚戌年 合邦 때 죽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나라가 亡하고 이제 姓氏마저 바꾼다면 어찌 先祖를 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요지의 遺書를 남기고 끝내 自決을 하고 말았다.

石田이야말로 선비 중의 선비요, 後代의 귀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日帝의 創氏改名에 항거 스스로 목숨을 끊어  
끝까지 반대한 柳健永선비의 遺書中에서

遺書

嗚呼柳健永十年古族也無才無命而猶倫理中人也國亡而不能死君  
害而不能死尚可諉於身無一命之慮而寧託跡漁樵猶作生人事于茲  
三十年所斃我人民數我倫綱日聞所不忍聞日見所不忍見忍之又忍  
庶幾保我父母全生之身定我天地均賦之性惟溘然之是待至於今日  
永滅我血傳之氏姓則同祖聚麀次筭事也滅國易姓何代無之詎意五  
千年文明民族遭此用獸變人之絕前大變乎噫無國無君無倫無綱而  
夷而獸而生寧一枕大寐以古貌古心歸見吾先王先祖於地下不亦快  
哉茲叫天靡逮仰毒就死庚辰七月二十四日也

雜著

關西日記

文化九月山東國車柳二姓發源之地長湍大德山鍾開川亦是文柳中

高

卷之二

雜著

十八



## 국가보훈자

시군별	훈격	수훈자	신청인	주 소	전화
곡 성	총무	김봉철	김봉철	곡성 곡성 학정 480	
"	화랑	송영권	송영권	" " 읍내 619	
"	인헌	서태봉	서태봉	" 삼기 금반 55	
"	"	임종구	임종구	" " " 168	
"	화랑	라종오	라종오	" " 청계 165	
"	"	오규식	문봉순	" 고달 두가1 구 666	4221
"	"	진해기	진해기	" " 목동 120-1	35
"	인헌	기정남	기정남	" 죽곡 신평 345	
"	화랑	이병규	이병규	" " 삼태 49	
"	인헌	조용구	조용구	" " " 156	
"	화랑	배명출	배명출	" " 당동 575	
"	"	국복섭	국복섭	" 석곡 석곡 147	
"	"	배상수	배상수	" 오곡 미산1 구 357	4346
계		13명			
곡성2 오곡1 고달2 석곡1 삼기3 죽곡4 계 13 명					

### 忠義塔(梧谷面 承法里)

1950. 6. 25當時 滅共戰線에서 赫赫한 功을 세우고 哀惜하게 殉職한 英靈 858位를 追慕하기 爲하여 1960. 3. 20 建立, 每年 6月6日 현충일에 英靈들을 追慕하기 위한 追慕式을 舉行하고 있다.



谷城이 낳은 國寶(無形文化財59號)

一山 金命煥



- 1976年 2月 2日 無形文化財 판소리 歎法 藝能 保有者로 文公部 認定(第59號)
- 平生을 북으로 우리 나라 固有의 傳統文化 事業에 몸바친 老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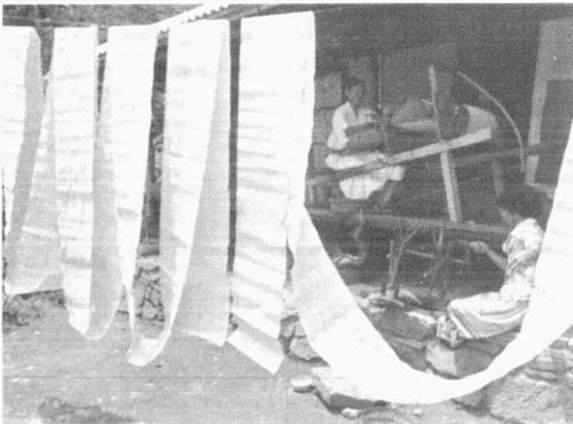


一山の 討

山은 山이로되 一山은 命煥이라 歎法속에 묻혀온 길 쓰라린 한 平生 神明 오른 북소리는 어제 오늘 아니러니 북소리는 우리의 얼 南道の 자랑 북해공 새가 되는 天地開闢 소리 속에 북장단 춤을 추고 마음은 뛰어 노네. 쿵쿵쿵쿵 따닥쿵쿵 靑春이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도 그 북소리 永遠한 生命되어 巨匠 一山 더 더욱 빛나리.

技能保有者, 無形文化財 32號

金點順



女恨千年的 細布 谷城 돌실나이

「부티허리 두른양은 만첩중산 높은봉에 허리 안개 두르는듯 봄이라고 나는양은 칠년대한 가 무름에 물만먹은 외기러기」

喜悲哀樂이 응결되고 恨맺힌 生活이 漂白된 내방문학의 한 장르.

돌실나이 技能保有者이자 無形文化財 32號인 金點順女史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배워 平生을 닦아온 이 技能을 이제 조카며느리에게 傳承시키느라 三伏의 더위도 잊고 길쌈 노래를 흥얼대며 바디를 치고 있다.

## 테니스 國家代表監督

金

文

一



39년만에 太極旗를 中共 땅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 테니스 國家代表 監督으로 보무도 당당히 太極旗를 先頭에 날리면서 中共 北京 땅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谷城邑 邑內里 出身으로 남 원高等學校와 明知大學을 卒業, 테니스 씨브에 관한한, 적수가 없을 만큼 우리 나라 最强者(국가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現在 明知大學, 現代重工業, 國家代表 監督으로 活躍
- L.A 올림픽 當時 平監督으로 活動
- 現代重工業 業務部 次長

# 양궁의 신데렐라

## 徐香順

본 적 : 곡성군 목과면 소룡리 86

주 소 : 광주시 두암동 842-35호

생년월일 : 1967. 7. 8

徐廷鍊氏의 2男2女中 막내

女中 1年부터 始作, 光州女高 3學年 17才 어린 나이로 84年 L.A. 올림픽때 金메달 획득 現在 梨大体育科 2學年在學中이며 國家代表 活躍.



전남 양궁은 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서향순에 의해 활짝 꽃이 되었다. 당시 광주여고 3년에 재학중인 서향순은 예상을 뒤엎고 금메달을 획득, 세계 양궁계를 발각 뒤집어 놓았었다. 김진호 등 금메달 예상 선수를 제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서향순은 두둑한 배짱과 묵직한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

서향순은 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올림픽 신기록인 더블 라운드 개인 종합 2천5백68점을 마크, 2위인 중국의 이영운을 9점 차로 제치고 국제대회 출전 첫번째에 금메달을 목에 건 영광을 안았다.

한국 양궁이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 이대

회가 처음이고 또 서향순도 첫 국제 대회에 나가 거뜬히 금메달을 따냄으로써 세계의 이목이 일제히 서향순에게 쏠렸을 정도.

더군다나 금메달이 예상되던 세계 기록 보유자 김진호가 2천5백55점으로 3위에 머문데 반해 무명의 서향순이 금메달을 따면서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서향순은 대회 이틀째까지 수위를 달리던 중국의 이영운을 마지막날 어린 선수답지 않게 50m 9발째부터 따라잡기 시작, 끝내 점수를 역전시키고만 저력과 투지를 보여 주었다.

지금 그는 이화여대 2년에 재학중이며 여전히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 大河드라마「開國」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 KBS 탈렌트 李斗燮



麗末의 격변기 속에서 성격 파탄자적 방당과 과격한 파행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아 야 했던 禰王역을 맡아 신구, 임동진, 김흥기 등 기라성같은 선배 탈렌트들과 기량을 겨루었던 신예가 李斗燮이다.

1953年 12月 5日 全南 谷城郡 木寺洞面 竹亭里 760번지에서 敎職者인 李相鉉씨와 金賢淑씨 사이에 二男二女중 長男으로 출생, 安養藝高와 드라마센타를 卒業하고 극단 “現代” “廣場” 소속으로 「남한산성」 「북벌」 「로물루스大帝」 「빵집마누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대작에 출연, 차범석 연극상, 연극 신인상을 수상, 배우로서의 자

질을 과시했다.

1980年 150대 1의 경쟁을 뚫고 KBS공사 7기로 입사, 탈렌트 경력 5년째를 맞고 있다.

아직 시청자들에게 낯익지 않은 것은 그의 까다로운 작품선택에 연유한다. 출연 횟수나 인기보다는 연기다운 연기를 보여 주려는 욕심때문에 때로는 차비까지 떨어질 정도로 궁색해지기도 하지만, 傳說의 故郷 「대산리 느티나무」에서처럼 다른 연기자들이 꺼리는 삭발을 자청, 영하 20도의 양평 눈밭에서 벌거숭이로 뒹굴기도 했던 열성과.

그런 기질은 연출가들 사이에서 특집 대형 배우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올해로 만 32세가 된 그는 아직 未婚.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 때문에 여복이 별로 없는 모양이라며 호탕하게 웃는다. 85년을 연기자 생활 10년을 중간 결산하는 도약의 시기로 잡겠다고 포부를 밝힌 그는 어버이날 특집 「가시고기」 (5月 8日 방영)에서 주역을 맡았으며, 反共드라마에서 朴憲永役으로 大人氣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올해는 꼭 장가들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텐데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녹화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총총히 스튜디오로 향하는 李斗燮의 뒷모습에 평범한 노총각의 쓸쓸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雲庵  
趙 鏞 敏



本籍：谷城郡 竹谷面 鳳亭里

住所：光州市 西區 珠月洞 442-11

1926. 11. 3. 生

- 全南道展 書藝部門 優秀賞
- 全南道展 招待作家
- 國展 6回 入選
- 東亞美術大展 入選 2回
- 國際書道聯盟 韓國本部 會員
- 韓國美術協會 會員
- 雲庵書藝院 經營
- 現在 每週 土曜日は 故郷인 谷城에 와서 文化院에 開設하고 있는 書藝院에서 後輩養成에 奉仕하고 있으며, 郡廳 會議室과 文化院에 병풍 各 壹點씩을 寄贈하여 愛郷心을 발휘.

教子弟如養室女家要嚴出  
 入謹交遊美接近匪人是清  
 淨田中下一不淨種子便終身  
 難植嘉禾矣

孫榮根傳  
 雲庵趙鏞敏書

子弟 가르침은 규중(閩中)의 處女를 기르듯이 하며 出入을 엄히 하고 交遊를 삼가게 하여야 한다. 萬一 한 번 나쁜 사람을 接近하게 되면 이는 곧 淸淨(淸淨)한 田地에 不淨한 種子를 심는 것이니 終身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려우리라.

# 松哉 李芳實



- 本籍：谷城郡 石谷面 봉전리
- 住所：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韓國書藝作家協會員
- 第1回 書畫 個人展(世宗會館)
- 韓國書畫作家展(世宗會館)
- 第2回 書畫 個人展(世宗會館)
- 李花美術展(世宗會館)
- 韓國藝指會展(예총화랑)
- 第3回 書畫 個人展(世宗會館)

- 現 東洋書畫研究院長
- 松哉 李芳實院長의 作品을 다음 外國人까지도 좋아하며 所藏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다이야트모 國會議長  
호주 프레이저 首相  
호주 스투덴 下院議長  
뉴우질랜드 멀든 首相  
피지 마라 首相

世宗文化會館에서 個人展  
때 前 國會議長 丁來赫氏와  
테프를 끊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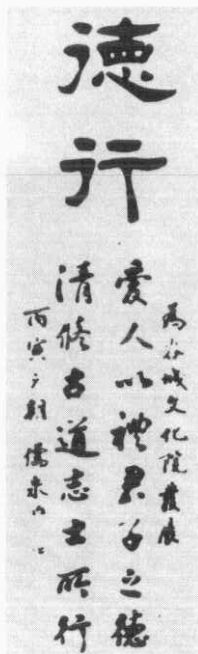


## 儒泉 徐鍾堅

出生地：全南 谷城邑 新基里 307  
 住所：木浦市 大安洞 4-8  
 雅號：儒泉  
 姓名：徐鍾堅

- 中央書道研究院 師範科 修了(61年)
- 全南大學校 經營大學院 修了(74年)
- 木浦中央三州經理學院長(62年~72年)
- 全國O.H.I美展 書藝部 入選(75年)
- 韓國美協書藝公募展 入選(75年)
- 木浦儒道書藝院長(76年~現)
- 道展(12回~21回) 10回 入持選(76年~85年)
- 道展 書藝部 最優秀賞受賞(85年)
- 崑 國展(28回~29回) 入選(79年~80年)
- 第1回 大韓民國 寫美術大展 入選(82年)
- 韓·中 書藝交流公募展 銅賞(79年)
- 社會教育 模範書藝院 受賞(79年 道教育監)
- 國際民間外交協會(P. T. P.) 會員(77年一現)
- 木浦 P. T. P 클럽 會長(85年~ )

- 藝總韓國美術協會 會員(77年~現)
- 木浦支部 書藝分科委員長(83~ )
- 韓·中 書藝文化運營委員(80年~現)
- 藝術文化大賞展 銅賞(82年)
- 中國書藝界 視察(82年)
- 中國 台北市 華岡博物館、高雄市 教育會館에서 展示(82年)
- 木浦稅關 關墨會 木浦矯導所 書藝班 指導(82~85年)
- 高等學校用 習字教本 上·下卷 發行(80年)
- 韓國藝能指導者研修會 會員(82年)
- 道展 推薦作家
- 松岩創作大賞受賞(85 )
- 法務部長官賞受賞(85年)



## 華岡 李英雨

畫風：人物, 風景圖, 花鳥, 群蝶圖  
 畫室：光州市 西區 社洞 136-1  
 電話：68-4495

- 全南 谷城 出生
- 石田 李喜淳先生 師事
- 韓國 傳統畫展 招待出品
- 韓國 書藝家協會 理事
- 全國 書畫大展 招待作家
- 日本 亞細亞 現代美術 招待作家
- 日本 亞細亞 現代美術 招待作家賞受賞
- 韓日 交流展
- 韓中 親善文化交流展 出品
- 嶺·湖南 書畫交流展 出品
- 個人展(서울, 大田, 釜山)
- 東洋畫家20人展 招待展 出品(미도파)
- 東洋畫3人展(서울 白松갤러리)
- 湖南라이온스클럽 招待展(藝術會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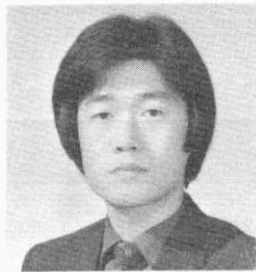




# 濟國趙石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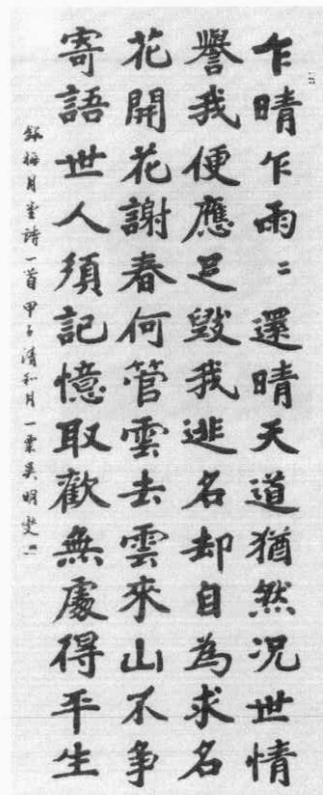
- 本籍：谷城郡 竹谷面 鳳亭里
- 住所：光州市 東區 山水洞
- 韓國美術會員
- 光州美術會員
- 韓日親善書藝文化交流會員
- 愚石書藝院 經營



# 燮明吳粟一

本籍：谷城郡 梧谷面 明山里  
 住所：光州市 農城洞  
 1952. 3. 5 日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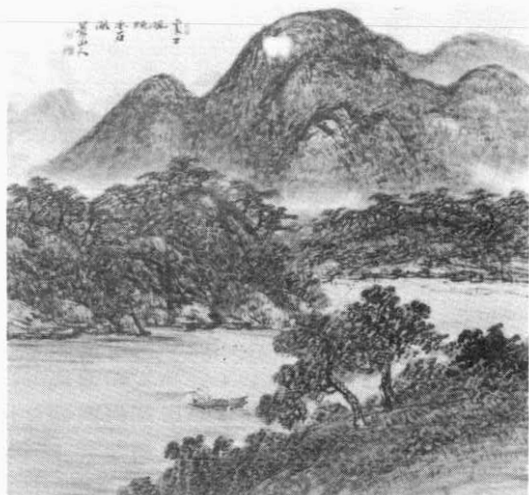
- 國展入選 2 回
- 全南道展 特選 4 回, 入選 3 回
- 全南道展 推薦 作家
- 全每大賞展 銅賞 受賞
- 全每大賞展 招待 作家
- 韓國美協會員
- 畿外墨林會員
- 現 카톨릭大學 講師  
無等書藝院長





# 景山 朴熙錫

- 本籍：谷城郡 谷城邑 大坪里
- 住所：光州市 忠壯路 1 街 16
- 52. 5. 11 日生
- 希哉文章浩先生 師事
- 全南道展 入選
- 東亞美術展 入選
- 全每大賞展 入選
- 元老先輩들의 評에 의하면 不遠 東洋 有數의 畫家로 展望
- 東亞美術展 文人畫 入選
- 韓國精銳作家展 招待
- 樹墨會員 2 回~ 9 回 出品
- ☎ 522-2626



# 沃耕 李在鎬

(旧名・在午)



生年月日：1936. 6. 23  
 全南谷城 出生  
 是耕 朴益俊 先生 師事



- 韓國書畫大賞展 特選
- 韓國傳統藝術大賞展 入選
- 韓國傳統藝術大賞展 特選
- '84 韓國現代美術大賞展 入選
- '84 韓國서예美術大賞展 入選
- '84 韓國서예書畫大賞展 特選
- 韓國美術協會會員



本籍：海南郡 海南邑 海里  
住所：谷城郡 谷城邑 邑内里  
職業：谷城副郡守

# 小龜 金三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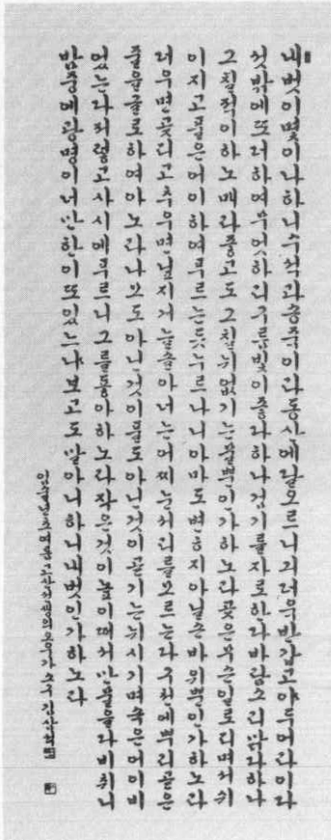


略歷：康津公立 農業學校 卒業

：國民學校 校師 4年

：全南道 公務員 35年

：1981年 第17回 全南道展 入選



※ 康津郡, 昇州郡, 谷城郡 副郡守를 歷任하면서 職員들의 家訓을 써주고, 또 廳內에 書藝그룹을 造成 直接指導에 當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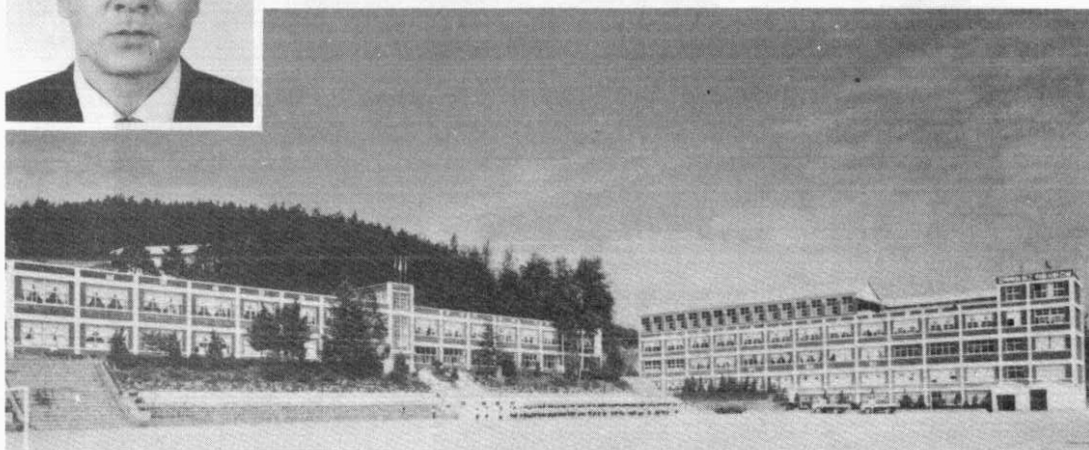
특히 谷城郡에서는 85年中에 本廳 事業所職員 約 2百餘名の 家訓을 製作 家訓展示會를 가진 바 있고 86년에 와서는 邑面職員等 3百餘名の 家訓을 制作中에 있으며 現在 郡廳內에 谷城墨香會를 設置 運營 約20名の 同好人을 直接 指導하고 있음.

書院의 不毛地인  
이 땅에,  
金吉榮 文化院長이  
開院



光州居住 趙鏞敏先生께서  
出張 指導 奉仕하고 있다.

## 地方 名門을 가꾸는 趙龍沂 校長



玉果高等學校 全景

趙龍沂 校長은 谷城郡 玉果面 玉果里에서 出生, 朝鮮大學校 政治學部를 卒業하고, 光州崇一中學校 教師 시작으로 教育界에 投身한 이래, 지금까지 출근 鄉土의 育英事業에 전념하고 있는 教育者이다.

1951年, 鄉里인 玉果面에 農民學園을 設立, 教育事業과 農民運動을 併行하여 왔는데, 現在는 道內에서도 有數한 私學 名門인 玉山中學校 및 玉果高等學校로 發展시켜, 萬餘名의 卒業生을 輩出해 냈다.

趙龍沂 校長은 英才育成을 위해 獎學財團을 設立, 불우 學生들에게 每年 3千萬의 獎學金을 支給하고 있으며, 또한 當校 卒業者로서 優秀한 成績으로 大學入試에 合格하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登錄을 하지 못한 學生 3名씩에게 50萬원씩의 登錄金을 支援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趙校長은 1967年 以來, 郡內에서는 最初로 梧山面에 織造工場을 設立, 運



玉果高等學校 敬老잔치 場面

營해 오고 있는데, 當時로는 國內 最初로 産業과 教育을 連繼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夜學制度를 導入, 262名의 從業員에게 배움의 길을 터 주기도 했다.

現在 運營하고 있는 學校現況을 대충살펴 보더라도 趙校長의 教育熱을 짐작할 수가 있다.

學校의 모든 施設과 機資材는 最現代式으로 갖추어져 있어 學生 教育에 아무런 불편도 없을 뿐만 아니라, 每月 「私學會報」와 「갈피 신문」을 發行, 全校生에게 配付하고있으며, 學力向上에도 기울여 85年度만 하더라도 總 91名의 大學 合格者를 배출하여 地方 名門으로서의 면모를 널리 과시하기도 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地方 鄉土文化의 大祝祭인 「갈피 祝祭」이다. 學生들과 地域社會民들이 모두 參加하는 이 祝祭는 各種 藝術行事 外에도, 잃어져 가는 漢詩, 書墨의 白日場도 실시하여 傳統文化의 계승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同時에 開催되는 「敬老 잔치」는 鄉老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젊은 世代들에게 孝親思想을 일깨워 주는 教育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한때 政界에도 뜻을 두어 全南 初代 道議員으로 活動한 바도 있으나, 現在는 오로지 育英事業과 文化事業에 專念, 지역 사회의 햇불이 되고 있다. (金吉榮 記)

## 斗寶實業 새마을工場現況



- 位 置：谷城郡 梧山面 蓮花里 550番地
- 代表者：趙龍沂(60歲)
- 業 種：纖維製造(日本옷감)
- 새마을工場 指定：73. 11. 23(商工部 第55號)

### ○規 模

- 垵地：1,084坪
- 建物：528坪(生産施設312,福祉施設216)

### ○從業員：206名(男8, 女198)

- 産業体特別學生：181名-玉果高等學校
- 大 學 生： 5名(1學年3, 2學年2)

### ○年間輸出目標：2,400匹(710千弗)

- 實績：2,137匹(641千弗)-90.3%
- 産業体學生 獎學金 支給
  - 造成：20,000千원
  - 支給：84년부터 施行

※定期 4年制大學入學生500千원, 初級大學入學生200千원

### ○産業体 學生 支援

- 登下 校：玉果高等學校 叫스利用
- 育成會費：10,300千원(1人當 50千원)
- ※大學進學生：織造機1台씩 貸與 物品生産 販賣 代金으로 自立卒業

### ○月勞賃 支給：19,570千원(1人當 平均 95千원)

- 熟練工：135千원
- 技術工： 95千원
- 養成工： 70千원

### ○生産性 提高를 爲한 特殊施策

- 食代：35,640千원 支給(1人當 月15千원)
- 生日祝賀 및 記念品 贈呈：2,400千원
- 勤勞者 및 家族 大運動會：年1回-800千원
- 新入生 修學旅行 및 自然觀察：年3回-3,000千원

### ○貯 蓄：135百萬원

- 最高：2,400千원(15名)
- 最低： 300千원

### ○表 彰

- 輸出 優秀業体：全羅南道知事
- 勞使協議 優秀事例發表 入賞：새마을運動中央本部長



# 우리 谷城에도 名門高等學校가 있다

玉果高等學校 校長 趙 龍 沂

## 1. 우리 고장에 한 톨의 밀알이 떨어진다.

이 世上을 살아가는 데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많겠지만, 배고픈 설움, 집없는 설움 못 배운 설움이 으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중에서도 못 배운 설움은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가슴 아픈 설움이 아닐 수 없다. 教育學者 Maslow 는 人間의 慾求段階說에서 最上의 慾求是 欲의 慾求充足에 依한 自我實現에 있다고 했다. 人間은 動物과 달리 物質的 豊饒만으로 人間다운 生活, 幸福한 生活을 營爲할 수 없고, 精神的 豊饒, 卽 宗教, 學問, 藝術 等に 對한 깊은 理解와 洞察을 通해서만이 人間다운 生活을 謳歌할 수도 있고 幸福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論語에서도 學問하는 기쁨에 對해 “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배움의 重要함을 알고 알지 못한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의 하나임을 알면서도 經濟的인 어려움 때문에 배움의 길을 잃고 失意에 빠져 방황하는 젊은 靑少年들이 많았던 時節이 있었다. 周知의 事實대로 解放後 우리 나라의 教育現實은 文盲者가 60%가 넘었고, 더우기 經濟的으로 困窮한 때라 대부분의 靑少年들이 中等教育

을 받을 機會가 적었고 거기에다 教育機關이 없는 農村實情으로는 都市로의 遊學은 生覺하기 어려운 때였다.

趙校長은 이와 같은 時期에 내 故郷을 爲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 고장의 젊은 이를 爲해 學校를 設立, 教育하는 일이었다. 덴마크의 教育者요 社會學者인 크리스찬. 콜드는 敗戰後 廢墟가 된 祖國을 爲해 高等學校教育을 實施 福祉樂園을 建設하지 않았던가? 나의 적은 힘이나마 내 고장의 靑少年教育을 爲해 한 톨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고 教育의 不毛地랄 수 있는 내 고장에 學校을 設立하여 어인 35年이란 짧지 않은 光陰이 흘렀다.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보람과 矜持를 느껴보기도 하지만, 결코 쉽게 選擇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았다.

## 2. 苦難의 歲月 속에서도 信念을 잃지 않고

내가 學校를 設立하겠다는 決心이 선것은 내 나이 26歲 때였다. 當時 나는 光州에서 國語와 英語를 가르치던 教師였고, 보

다 높은 社會的 地位를 얻어 남 부럽지 않게 生活할 수 있었으나 故鄉에 돌아와서 굶주리고 헐벗는 그들과 더불어 故樂을 같이 한다는 것이 보다 값진 일이라 생각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落鄉하여 배움에 주린 靑少年들을 모아 玉果禮拜堂을 빌어 書堂式 教育 玉果農導塾으로 出發을 하게 되었다. 教育을 始作한지 몇 달이 채 안되어서 學生數가 急增한 關係로 場所가 狹小하여 새로운 學校敷地를 求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곳이 바로 現學校 位置인 玉果里 산 85番地 갈피 기슭이다. 나는 이곳에 터를 잡고 나서 기쁜 마음을 禁할 길 없어 한편의 詩를 지어 불렀다. “젊은이야, 팔을 걷고 일어나거라. 끊는 피 뛰는 가슴 거센 靑春을 무너지고 짓밟힌 내 고장 위해, 한 톨의 밀알이 되어 보꾸나” 이 詩는 지금의 校歌 1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터는 잡았으나, 建物을 지을 經濟力이 없어 천막 教室을 지어 移設을 해야만 했다. 천막인지라 雨天時에는 천정에서 비가 새고 비바람을 막을 길이 없었다. 學生들을 수용할 교실이 必要했던 것이다.

나는 家財를 털어 내놓고 教師들과 學生들 그리고 나는 험한 바위산을 허물어 터를 다듬어야 했고, 산에서 棟木을 베어 날라야 했으니, 우리들의 어깨와 손에는 피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木造 教室 빈칸의 뼈대는 세워졌으나 마루 없는 教室로 흙바닥에 거적을 깔아야만 했고, 창문에는

창호지를 발라야 했으니, 그곳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일은 형언키 어려운 苦痛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려운 環境 속에서도 學生들은 不平不滿 없이 나를 잘 따라주었고 지금도 그들은 나이가 오십줄에 있으면서도 母校의 哀慶事가 있을 때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 주는 나의 親舊요 學校設立의 同志들인 것이다. 이제 玉果高等學校는 施設과 學生의 質量面에서 都市學校를 凌駕하게 되었으니, 이는 初創期 同門들의 피땀어린 勞力과 苦痛의 對價임을 分明히 해둔다.

### 3. 名門私學의 꿈을 實現하다

玉果高等學校를 設立한 지 올해로 35년이 된다. 이제 本校는 質的으로나 量的인面에서 他校를 앞서가는 名門私學으로서 遜色이 없다. 壹萬餘名の 在學生과 100餘名の 教職員이 勤務하는 大規模學校로서 5層 現代式 建物이 우람하게 서 있다. 여기에는 尖端科學의 寵兒인 Computer 室을 비롯하여 同時에 千餘名을 收容할 수 있는 綜合視聽覺室 및 圖書館, 72席의 위용을 자랑하는 語學室 피아노 教習室, 音樂 감상실, 미술 실기실, 養護室, 100%의 實驗實習 機資材를 갖추게 될 200餘坪 規模의 最新 科學館, 放送授業을 爲한 6元放送室, 學校自體 交換室 學生 便宜施設로 水洗式 화장실까지도 갖추고 있다.

教育內容面에서도 地域實情에 맞는 移樣한

教育過程을 運營하여 學生들의 學力을 增進시키고 適性和 趣味, 特技를 伸張시키는 데 있어 先導的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本校는 學力伸張을 圖謀하기 爲하여 優秀한 教師를 確保하고 있으며, 放課後 日日學習課題物을 연중 提供하는 한편 大學進學을 돕기 위하여 深化班을 編成, 指導하고 있으며, 優秀學生에 對한 合宿指導 等 實力自상에 注力하였으며, 特히 新入生들의 基礎學力의 定着을 爲하여 매년 入學前 冬季教科 Orientation 를 實施한 結果, 所謂 名門大學인 서울대를 비롯하여 卒業生의 36% 이상이 4年制 大學에 進學하는 成果를 올리게 되었다.

就業指導面에서도 大學進學이 어려운 學生들을 對象으로 就業班을 編成, 男學生에게는 工科系列 學習指導를 通하여 自動車 運轉 整備·熔接·배관 등의 技術資格을 取得케 하고, 女學生에게는 商科系列 學習指導를 通하여 簿記, 打字, 컴퓨터, 珠算 등의 資格을 取得시켜 職業班 學生 80% 이상을 就業시킬 수 있게 되었다.

特別活動面에 있어서도 學生들의 適性和 取味를 살리는 한편 藝體能系列 學生들의 大學進學을 돕기 爲하여 放課後 多樣한 常設 特活 프로그램을 編成 복싱, 레슬링, 태권도 陸上, 器樂(피아노), 美術, 聲樂, 舞踊, 英語會話班 等を 充實히 指導한 結果 85年度 少年體典에 出戰하여 복싱에서 金, 銀 메달을 각각 携得하는 榮譽를 地域社會에 안겨

주었으며, 85年度 道知事旗爭奪 복싱大會에서도 全南綜合優勝을 차지하는 戰果를 올렸으며, 學生들의 心性陶冶를 目的으로 創設한 태권도部에서는 有段者 80餘名을 誕生시켰고, 其他 特別活動 競演大會에서 郡內 綜合優勝을 차지하는 等 各種大會에서 刮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게 되었다.

이제 本校는 學生들에게 知·德·體·技를 기르는 教育本然의 機能을 착실히 遂行함은 勿論 地域社會 文化暢達의 求心點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는 데 있어 秋毫도 遜色이 없는 名門高等學校로서의 位置를 確固히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本校가 成長發展하기 까지는 地域民들의 깊은 理解와 協助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며 이에 對하여 항상 感謝하게 여기고 있다.

本校는 한 個人的 學校가 아니다. 教育은 地理的 벽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本校의 오늘이 分明히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全南에서 名門高等學校가 된 玉果高等學校는 우리 谷城의 큰 자랑의 하나일 것이다.

玉果高等學校는 이 고장의 棟梁之材를 撫育하는 知性的 搖籃이요 地域社會 모든 사람의 學校라는 觀念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學校發展에 聲援과 指導助言이 있기를 期待한다.

# 友谷會

원만큼 家計가 好轉되었다 싶으면 우선 一身上의 平安만을 꾀한 나머지, 好衣好食이나 奢侈 享樂에 빠져드는 게 요즘의 人心이다.

그런데, 이러한 世上의 風潮를 叱責이라도 하듯 넉넉하지 못한 生活 속에서도 愛郷心 하나로 뭉쳐 故郷의 發展에 노력하는 모임이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고 있다.

在光人士인 車京春氏(中學校長)를 비롯한 谷城出身 人士들로 講成된 「友谷會」가 바로 그 모임인데, 初代 會長으로 推戴된 洪種焄氏를 中心으로 全會員들이 數年前부터 物心兩面으로 故郷 돕기 運動을 벌여, 벌써 多大한 成果를 거두면서 鄉民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會員들 중 2~3名을 除外하고는 거의 모두가 月給封套에 依存하거나, 東奔西走하며 구멍가게 등으로 生計를 유지해 나가는 어려운 처지들임에도, 오로지 愛郷心 하나로 뭉쳐서 故郷 돕기 活動을 벌여 온 사실은 참으로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友谷會에서는 每月 會員들이 조금씩 基金을 出捐하여 友谷獎學金을 마련, 故郷學校인 谷城綜高 學生에게 獎學會으로 支給하고 있다.

또한 個人的으로도 故郷의 育英事業 및 文化振興事業에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는데, 그중 몇가지만 소개해 보기로 한다.

金學瑾氏는 中等獎學士로서 獎學業務도 多忙한데, 잊혀져 가는 鄉土史料 蒐集에 努力하여 谷城의 傳來 民俗놀이(짚치기, 액막이 놀이)를 發掘, 南道文化祭에서 大賞과 獎勳賞을 受賞하는 데 큰 貢獻을 했고, 洪種焄氏는 綜高와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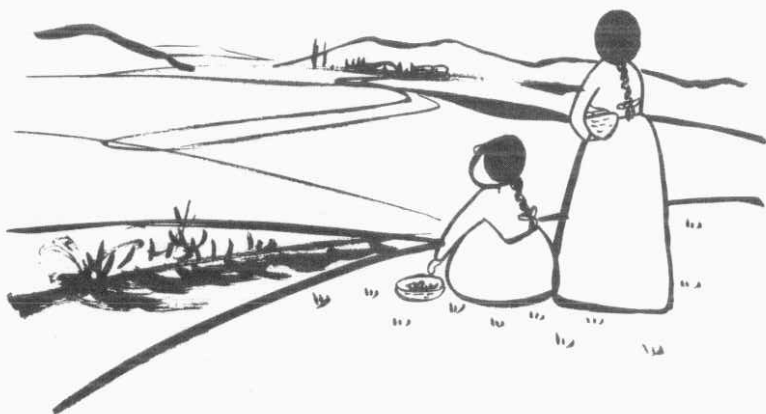
學校에 校門, 컴퓨터, T.V 세트 등을 寄贈하였으며, 崔漢錫氏는 역시 綜高에 農業器具 一体를 寄贈함으로써 道內 有數한 農樂隊 創設을 도왔고, 朴錫浩氏는 綜高에 V.T.R 시설, 컬러 T.V 16台, 촬영기 등을 기증하여 視聽覺教育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외에도 金斤喜氏는 컴퓨터, 李南植, 柳在滿氏는 學校新聞 發刊을 돕는 등, 많은 會員들이 적지 않은 私財를 털어 故郷 發展에 앞장을 서고 있다.

友谷會는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는 것을 꺼려한다.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眞情에서 우러난 愛郷 活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가룩한 마음들을 덮어 둘 수가 없어, 여기에 그 活動의 一端을 소개하는 것이다, (金吉榮 記)

# 맑은 물을 그리며

安 泰 休  
(全南大學校教授)



나는 「谷」字만 들어도 故郷인 谷城이 連想되어 가슴은 설레이면서도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나도 모르게 防禦態勢를 갖춘다. 어떠한 「콤플렉스」가 있기에 이러한 過敏反應을 일으키는 것일까?

谷城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너무나 없어 말만 나오면 험담만 있을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친구는 내 故郷이 谷城이라고 하면 「아아 求禮 谷城?」이라고 하며 되물기까지 한다. 얼마나 無識하기에 谷城郡도 모르느냐고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谷城이란 고을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求禮와 結附시켜야만 알 수 있을까 하는 서글픔에 쓸쓸

해지기까지 한다.

여러 모로 뒤졌다고 하는 全羅道에서도 지리도 開發되지 않은 곳이 谷城인가 보다. 特産品 하나 없고 觀光名所 한 곳 없는 초라한 내 故郷 谷城. 아마 無名하기로 有名하기에는 全國 一位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망각 속의 내 고장이 現代産業化의 때가 묻지 않고 自然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찬란한 未來가 있다고 믿는다.

都市生活의 살벌한 분위기와 殺人的인 매연, 폐수 등 온갖 公害物을 쏟아 놓는 工場과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希望에 찬 將來가 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아직 汚染되지 않은 江은 五大江 中 섬진江 뿐일 것이다. 牧寺洞 을 끼고 흐르는 鴨綠江과 더불어 谷城, 鴨綠, 求禮口를 잇는 溪谷을 따라 흐르는 이 해 맑은 江물과 은빛 찬란한 그 넓은 白沙場, 그리고 여기에 어울린 江변의 울창한숲 等等이 이룬 調和는, 아마 우리 나라 에서는 우리 고장 谷城에서만 볼 수 있는 絶景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深山幽谷」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인 것 같다. 人口 팽창에 開發産業의 急進展으로 全國 방방곡곡의 有名한 사찰이나 公園은 都心地를 무색하게 할 만큼 人山人海를 이룬다. 이런 사람떼의 소란 中에서도 無名의 덕택에 내 고장의 섬진강의 숨소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이 天然의 公園은 限없는 잠재력을 가진 채 묵묵히 鄉民에게 永遠하고 平和로운 보금자리를 펴 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 찾는 求禮 華嚴寺에 가는 길에 全羅線과 並行하여 아담하게 다듬어진 國道를 달리면서 車窓에 비친 이 섬진江의 情景을 바라보고 있을 양이면, 문득 어렸을 때 물놀이하고 씨름하며 놀았던 追憶들이 가슴에 가득 떠올라 그야말로 감개무량함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맑고 깨끗한 물가나 언덕 위에 아담한 오막살이 집이라도 하나 지어 저 新鮮한 空氣를 실컷 마시며 餘生

을 平安히 살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幸福할까 하는 꿈에 사로잡혀 보기도 한다.

工場을 유치하여 고용 效果를 노리는 것도 一理가 있겠으나, 地域社會의 特徵을 살리는 것이 보다 긴 眼目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特히 이 섬진강과 압록강 주변의 여건은 아직 現代文明의 온갖 副産物에 찌들어지지 않은 우리 나라 唯一의 天然公園이라 믿고 온 郡民이 긍지와 誠意로 잘 保存해가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萬一에 이 江들마저 오염되고 은어의 서식이 끊기게 된다면 이는 내 고장 谷城의 生命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며 이 江물의 폐水化는 바로 谷城의 폐허化를, 그리고 나에게서 名實共이 完全한 廢郷化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日帝末葉인 1943年 谷城 中央國民學校를 卒業하면서, 國民學校訓導는 軍服務가 免除된다는 바람에 光州師範學校를 志願 入學했던 것이 因緣이 되어 지금까지 40餘年間을 光州에서만 살아 왔다. 解放된 다음 해에 當時 湖南에서는 하나 밖에 없었던 大學인 光州醫科大學(現全南醫大)에 入學, 6年後 卒業하여 現在 勤務하고 있는 同大學 微生物學科에 발을 디더 놓은後 부터는, 5·16 軍事革命 直前 渡美하여 UCLA 醫大에서 約 3年間 研究課程을 마친 것 外에는 단 한 발자욱도 다른 곳에서는 勤務해 본 적이 없는 외국 人生길을 걸어 왔다.

이렇듯 아직 大學 캠퍼스를 벗어나 生活 해 본 적이 없어서인지 나는 지금도 研究室 밖의 世上事는 번잡스럽게만 느껴진다.

光州와 谷城間은 不過 100里, 요사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出退勤까지 하는 거리인데, 나에겐 千里길같이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져 왔다. 教室이라는 象牙塔에 묻히면 世俗的 凡事에 無觀心해질 수 밖에 없다고 自己辯明을 해 보려고하지만, 그렇다고 이렇다할 研究業績을 내놓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學問的으로 成功도 못한 주제에 一般社會生活에서도 落弟生인 것을 自認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통수같은 삶中에서도 지난 秋夕 오랫동안 省墓하면서 문득 나의 묻힐 곳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에 나도 이젠 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人生이 황혼期에 들어서면 외롭고 쓸쓸해져, 자연 어렸을 때 자라던 곳, 많은 追憶이 담긴 곳인 故郷을 그리며 自己의 뼈가 묻힐 곳을 찾게 된다는데 내가 바로 이러한 處地에 와 있구나 하는 착잡한 心情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谷城郡 古達面 牧洞里 775番地. 지금은 흔적도 없겠지만 이곳이 바로 내가 태어나고 國民學校 2學年까지 자랐던 原籍地다. 다른 애들은 대개 8才에 國民學校에 入學했으나 나는 先親께서 시키는대로 書堂엘 들어가 漢文工夫를 一年間 했다. 그런데, 지금도 눈에 선하고 走馬燈같이 어렸을 때

의 이런일 저런일들을 回想케 해 주는 곳은 이 書堂에 가는 길목에 있었던 큰 샘터이다. 아직 이 큰 샘터는 그대로 있을까?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들며 빨래하고 온갖 話題로 웃음의 꽃을 피우곤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할까? 이 큰 샘터에서 흘러나온 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미나리논은 지금도 싱싱한 미나리를 生産하고 있을까?

또 동네 東南쪽에 있었던 큰 연못은 그대로 있을까? 어렸을 때 그렇게 울창했던 뒷동산이나 멀고 웅장하게만 느껴졌던 골짜기의 폭포들도 지금은 그렇게 장엄하고 웅대하지는 않겠지만 사라지지는 않았겠지.

이러한 그리움과 설레임이 교차되면서 回想은 想像으로, 想像은 空像으로 限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가지 追憶들을 그리면서도 막상 그곳을 直接 찾아가 본다는 것은 童心 때의 아름다운 꿈들이 一時에 무너져 버릴 것 같아 敢行할 勇氣가 나질 않는다. 아직도 마음만은 젊어서일까?

靑少年期엔 젊음을 資産으로 꿈을 實現하기 爲해 온갖 精誠을 다 쏟고 壯年期엔 이 꿈과 現實을 調和시키는 데 餘念이 없이 지내며 老年期엔 追憶을 되새기는 재미로 산다고 한다. 人生의 幸福은 마지막 죽기 前에 웃을 수 있는 耆에게 있다고 하니 追憶의 보금자리인 故郷 그리움도 이러한 理致에서 나온 天理인가 싶다.



# 황새야 돌아오라

임 춘 성

내 고향,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지금부터 40여년 전만해도 길조라고 일컬어지는 황새가 수없이 동구나무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황새떼가 어느 해인가 빈 둥지만 남겨놓고 훌훌히 사라지더니,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황새!

그 목과 다리가 여늬 새보다 길어서 언뜻 보기에는 슬픔을 가득 실은 짐승으로도 보이고 “씩씩”거리는 울음소리가 비록 아름답게 들려지는 않지만 확실히 길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 황새떼가 살 때만 해도 내 고향 “여우내”(英雲里), 통칭 “황새넝쿨 동네”는 더운 김이 무럭무럭 나는 마을이었다.

유별나게 부자 마을은 아니었으나 모든 생활에 아쉬움이 없고,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애경사에 잘 뭉쳐지는 주름없이 살아가는 모범적인 다복한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 황새떼가 떠나간 뒤부터 차츰 동네 기운이 약해져 가고 빛이 어두어져 가더니, 한 집 두 집 가세가 기울어지고, 굶기야는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이 늘어가게 되었다.

참새떼가 한창일 무렵, 나의 조부님께서서는 비둘기를 무척 좋아하셨다. 그래서 조

---

부모님께서 기거하시는 사랑채 처마 밑에는 온통 비둘기 집이었고 거기에 서식하는 비둘기도 족히 수백 마리는 되었음직했다.

그런데, 황새떼가 사라지고 몇 개월 뒤 어느 스산한 가을 밤에 조부님께서서는 별세하였고, 날이 새자 이상하게도 그 많았던 비둘기가 한 마리도 없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온 식구가 말없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비둘기가 돌아 오기를 기다렸으나 황새와 마찬가지로 돌아오지 않고 차츰 가세만 기울게 되더니 결국은 나의 집도 정든 고향을 떠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황새!

내 어린 시절, 새벽 하늘을 “웁 웁”거리며 떼지어 날던 황새!

우람스런 동구나무 가지마다 오밀조밀 틀어올린 황새 둥지!

그 황새가 내 고향에 봄을 싣고 다시 찾아 오기를, 그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학수 고대하고 있다.

“어려움 다 가고 내 고장 내 마을에 황새가 찾아 온다면 옛정 다시 나누면서 오손도손 살자꾸나”

너무 긴 세월이다. 너무 지칠대로 지친 기다림이다.

“황새야 날아라. 훨 훨 깃을 치며 시원하게 날아 오너라. 너를 기다리는 따뜻한 인정이 깃든 내 고향으로……”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한 노인이 황새가 떠난 뒤 30년간을 하루도 쉬지않고 정성껏 돌아오기를 빌었더니, 그 지성이 하늘에 닿았던지 30년만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왔다는 보도를 보았다.

나도 이제 오래지 않은 앞날에 몽매에도 그리던 내 고향을 찾아 다시 돌아올 생각이다. 그래서 뜨거운 복과 정과 사랑을 안고 언젠가는 귀환해 줄 황새를 기다리며 내 고향을 지킬 생각이다.

그리운 황새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는 “축, 대 환영 황새 귀환”이라는 플래카드라도 내 걸고 텅텅한 막걸리 잔이라도 기울여가며 훈훈한 인정을 일깨워 보고 싶다.

황새야 돌아 오라!

그 크고 시원한 날개에 복과 정과 꿈을 싣고 훨 훨 깃을 치며 날아 오너라!

혹자는 곡성을 군세가 약한 산골이라고 경원시한다. 그러나, 나는 내 잔뼈가 굵어 온 내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한다.

어느 고장보다 인정 많고 순박한 내 고장…….

머언 훗날 내 후손에게 곡성은 내 고향이라고 떼떽이 말할 수 있도록 나는 황새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남은 여생을 곡성을 가꾸기 위해 진력할 생각이다.

# 故郷의 少時을 되돌아 보며

車 京 春  
(靈岩鳩林中學校長)

古詩에 胡馬依北風하고 越鳥巢南枝한다 했고, 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고 했는데, 고향을 생각하면 우선 고향 산천이 생각납니다.

봄이면 서산에 올라가 향긋한 풀내음을 맡으며 진달래를 꺾고 마을 뒤 밭 등에서 풍기는 山茶菜의香氣에 陶醉되던 일, 여름이면 매미 소리를 벗삼아 水晶같이 맑은 산골 웅덩이에서 미역잡던 일, 마을앞 방죽에서 주낙으로 가무치랑 뱀장어를 잡던 일 등이 엇그제같이 되살아 납니다.

다음으로 나를 길러주던 방죽골 마을과

마을 어른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도 마냥 그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던 은사님들과 곡성읍의 선배들, 어른들 모두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가 어릴적에는 어찌나 福을 못 닳던지 생각해 보면 가시밭길보다 어려운 나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日帝末期에 쌀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소나무 껍질죽과 썩버무리 콩깨묵 떡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떨어진 무명베옷에 양말이란 생각도 못하고 맨발에 소오리(집세기)

와 계다(나막신) 짝을 신고 여름 겨울 없이 복성씨가 모두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겨울에는 발이 얼어 터져 걷지를 못한 일,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온통 파엿어서 보리와 호박을 심던 일, 運動場 가에 防空壕를 파느라고 고사리손이 부르던 일, 낮이면 산에 올라가 소나무 공이를 따고 松岩油(石油 代身에 飛行機用 揮發油를 뽑아 내는 原料)를 뽑던 일, 아침 저녁으로 새골(校村里) 뒷산에 올라가 神社參拜하고 清掃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解放이 되자 얼마 안 있어 麗順叛亂 事件이 일어 나고, 到處에 屍體가 튀굴고 밤이면 銃소리에 벌벌 떨던 일이 되살아 납니다.

내 고향 아름다운 山川, 신나는 故鄉, 山이라면 東樂山, 兄弟山, 通明山, 神仙바위, 번개바위, 물이라면 三仁洞 溪谷, 道林寺 溪谷, 순자江, 東山정이, 새물 白沙場, 明山 貯水池, 모두 다 아름다운 名勝地이고 珍珠같은 故鄉山川이건만 나의 어릴적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故鄉이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故鄉山川이 따듯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고 가시밭으로 변 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疆土를 왜놈에게 빼앗기고 우리 모두가 왜놈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日本人 小學校(國民學校: 지금 教

育廳 자리) 學生들을 불러치면 뿌연게 전살이며, 급게 단장한 옷맵시며, 가족으로 만든 번들번들한 冊가방이며, 깨끗한 運動靴며 모두가 너무나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解放이 되자, 光復의 感激도 暫時일 뿐 左右의 싸움에서 麗順叛亂事件, 6·25 事變 등으로 살기는 여전히 어려웠고 不安과 恐怖의 連續이었습니다.

六·二五戰爭은 끝났으나 살 길이 막연하고 젊은이들은 牛骨塔(大學卒業狀을 말함)을 등에 진 채 마을마다 사랑방에서 花關판으로 歲月을 보냈고 絶望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青年時節 故鄉을 떠나 벌써 他鄉살이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故鄉하면 어릴적 생각이 떠오르고 荊棘의 나날들이 되살아 나곤 합니다.

누가 우리의 過去를 그토록 悲慘하게 만들었으며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는 불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歷史의 수레바퀴를 누구에게 닦하리오마는 그래도 마음의 한 구석이 허전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인 일일까요?

나는 教育을 職業으로 삼은 탓으로 내가 가르치는 弟子들에게 입버릇처럼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습니다.

「歷史에 責任을 지고 歷史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깨어 있었을 때 우리 민족은 滿州 벌판은 勿論 시베리아 一部까지 號令하는 大帝國을 建設했고, 中國大陸에 君臨하던 隨나라 唐나라의 百萬大軍을 무찔러 그들을 魂飛魄散케 했으며, 青海鎮을 쌓아 黃海, 東海, 南支那海에 이르는 廣濶한 海洋을 支配했으며, 中國大陸을 둘러 朝貢을 받던 契丹의 大軍을 무찌르고, 亞細亞에서 西洋까지 이르는 大帝國을 建設하고 侵略해 온 元의 大軍에 四十年間을 抵抗하는 強한 民族이었습니다.

祖上들이 깨어 있을 때는 靑磁가 나왔고 八萬大藏經이, 또 世界 最初의 金屬活字가 나왔으며, 한글과 거북선, 東醫寶鑑이 나왔습니다.

西歐列強이 아시아를 侵略하여 아세아各國이 그들의 植民地가 되어 갔을 때 오직 日本만이 깨어 있어서 그들의 植民地 신세를 免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틈에 끼어서 아세아 侵略에 나섰습니다. 日本이 未開狀態에서 우리 나라와 거의 同時代에 西歐列強으로부터 門戶開放의 壓力을 받았다(서기 1953年)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서글프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日本이 世界第二次大戰에서 敗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물러나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그들은 오늘날 世界第一의 貿易國으로, 世界第

一의 債權國으로, 世界第一의 輸出國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史上 未曾有의 繁榮을 누리면서 그들이 쌓아 올린 富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고 苦悶하고 있습니다.

한便 부러움고, 한便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失望만 마십시오. 나는 며칠 전 日本人이 쓴 「日本이 韓國에 지는 날」이라는 冊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韓國人을 얼마나 正確하게 把握하고 있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韓國 사람은 頭腦에서나 創造性에서나 藝術性에서나, 손재주에서, 體育에서 自己들 보다 越等히 優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너무 樂觀的으로 보고 徹底하게 檢討하지 않은, 그들의 表現을 빌면 「괜찮아」로 表現하는 適當主義로 흐르는 傾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冊에는 '88 올림픽을 契機로 韓國은 日本을 많은 分野에서 리드하고 日本을 뒷전으로 돌릴 것이라고 豫測했습니다. 또 文藝春秋(日本의 權威月刊誌) 12月號에는 「昇龍 韓國의 威脅」이란 長文의 論文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韓國人과 日本人의 밑바닥에는 儒教라는 共通의 精神文化가 깔려 있고 日本의 經濟的繁榮은 儒教를 바탕으로 한 사무라이(武士道)精神의 所産이라고 하면서 그들 民族의 長點으로 누가 強制를 안해도 스스로 自己의 責任을 다하

---

는 自律性을 들었고 韓民族의 長點으로는 頭腦가 明哲하고 부지런하여 한번 發動이 걸리거나 賢明한 指導者가 이끌어 주면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 순식간에 해내는 能力이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한便으로는 理由가 많고 말이 많으며 打算의이어서 自律에 맡기거나 채찍이 없으면 허랑방탕하여 주저않는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學問, 體育, 藝術, 科學技術, 産業의 모든 面에서 日本을 따라 잡고 어떤 分野에서는 日本을 제치고 先頭를 달릴 것이라고 展望했습니다.

괴롭고 서글썸던 過去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들의 責望을 다시 한번 되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적당주의, 둘째 他律性.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世界第二次大戰이 끝난 即後 敗戰한 日本이 잿더미 속에서 世界第一의 經濟大國이 되도록 한 功勞는 무어라 해도 小說「德川家康」(野望, 大望 등으로 翻譯되었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冊을 읽고 日本人들은 絶望에서 일어 섰으며, 또 오늘날 經濟大國이 되었으면서도 재작년(1983年)에는 富者가 된 日本人들이 幸여 精神的으로 解弛해질까 봐 「오싱」이라는 드

라마로 다독거리고 있었습니다.

以上과 같은 日本人들의 自彊不息하는 姿勢는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歷史上 처음으로 世界에 雄飛할 機會를 잡았습니다. 이 좋은 機會를 絶對로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太陽은 漸次 우리 쪽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나일江에서 에게海로 (그리스 文明) 다시 로마로, 로마에서 리베리아반도로 (스페인, 포르투갈), 리베리아 半島에서 화란으로, 화란에서 英國으로, 英國에서 프랑스 獨逸로, 여기서 다시 大西洋을 건너 美國으로, 美國 東海岸에서 西海岸으로, 다시 太平洋을 건너 日本으로 건너 오고 있습니다. 日本 다음에는 韓國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繁榮의 太陽을 붙들고 先進大國의 隊列에 끼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歷史的 責任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을 基點으로 새 歷史를 創造해야 할 보람찬 課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三千里 錦繡江山, 아름다운 疆土, 살기 좋은 땅, 地震이나 颱風도 없고 世界에서 第一가는 氣候, 우리 民族이 祖上 代代로 눌러 살아온 땅, 우리 祖上들의 뼈가 묻혀 있고 또 우리가 묻혀야 할 땅, 그리고 우리 後孫이 子子孫孫 눌러 살아야 할 땅, 이 祖

國을 우리가 지키고 가꾸지 않고 누가 지키고 가꾸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지긋지긋한 고난을 두 번 다시 子孫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슬기로와야 하겠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우리 모두 발벗고 부지런히 일해서 先進祖國建設의 隊列에 누구나 다 參與해야 하겠습니다. 게으름, 適當主義, 눈치보는 빨리 버려야 하겠습니다. 호남 지방에서도 우리 谷城은 經濟的으로 가장 뒤떨어져 있고 人物이 적기로도 둘째 가라면 서운할 地境입니다. 그래서, 谷城出身들은 곳곳에서 孤軍奮鬪, 힘겹고 어렵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故鄉 谷城에도 햇볕이 쨍하고 쪼일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美國의 실리콘베리와 日本의 山間僻地들이 오늘날에는 다른 先進地域보다 빠른 速度로 發展하고 있습니다. 맑은 空氣, 깨끗한 물, 잔잔한 바람, 순박한 住民, 이들은 所謂 하이테크라 불리는 尖端技術에서 不可缺의 要素이고 곳곳에 굽이굽이 서려 있는 名勝古蹟은 돌아오는 레저時代의 寵兒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故鄉에 對한 자량과 矜持를 갖고 未來에 對한 希望에 불타, 내 고장 가꾸기에 힘써야 하겠고, 많은 人材들이 排出될 수 있도록 젊은이에게 아낌없는 보살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故鄉은 생각만해도 가슴 설레이는 아름다운 보금자리입니다.

丙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谷城郡의 繁榮과 發展 그리고 故鄉에 남아 谷城을 지키시는 여러 어른과 後輩, 그리고 郡民 여러분과 谷城發展을 爲해서 애쓰시는 公務員 社會團體 여러분께 幸運과 健康이 함께 하시길 빌며, 내 故鄉 谷城에서 雨後竹筍처럼 싹별같은 人物들이 쏟아져 나와 祖國의 棟樑들이 되어 주실 것과 本誌가 끊기지 말고 號를 이어 繼續되어 谷城郡民의 燈불이 되어 줄 것을 손모아 빌면서 어느 詩人의 詩를 끝으로 이 글을 맺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뼉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1985년의 마지막 해를 보내며)



# 故 鄉 頌

李 起 永  
(谷城郡教育長)

나는 「飲水思源」이란 말을 무척 所重하게 여기며 그 뜻을 吟味할 때마다, 故鄉을 생각하곤 한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도 그 根源을 생각하라고 했다. 하물며 한 人生을 되돌아 보면서 어찌 자기를 낳아준 고향을 잊을 수 있겠는가?

世上이 變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故鄉意識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世上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故鄉을 심어 주는 成長의 過程이

결손되고 있다고 表現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故鄉의 풋풋한 情을 느끼고, 그 情을 뇌리에 새길 만한 나이가 되면 都市로 都市로 빠져나가는 行列이 늘어만 가고 있으니 人格의 內面 깊이에 故鄉이 새겨질 리 만무하다.

勿論 生活領域이 달라지고 生活의 갈래가 매우 多樣해져서 시골에 붙박혀 살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成長의 過程中에서 靑少年 時節만큼은 시골에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고집스러운 주장이

다.

하기야 情들면 都市도 故鄉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都市에는 시골처럼 故鄉의 맛과 멋을 풍겨주지 못한다는 것이 一般的인 해석이다.

어려서 잠시 잠간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내 都市로 떠나간 사람에게는 시골이 他鄉이 되고 都市가 故鄉인 셈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애뜻하게 느끼는 人間的인 情을 역시 시골의 故鄉에 근거함은 어쩔 수 없는 人之常情이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항상 지금 자라는 세대들에게 어린 時節은 시골에서 자라게 하고 故鄉意識 속에는 시골을 印刻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을 꺾어 버리지 못한다.

神은 田園을 만들고 악마는 都市를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 어린 時節을 시골에서 자란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시골의 맑은 공기, 서로 믿고 도와서 살아가는 淳風의 良俗, 소박하면서도 剛直한 農民들의 훌륭한 氣像, 마을 뒤에 있는 푸른 숲,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물,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연못, 나물 캐러 다니던 언덕과 들녘,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 눈부시게 빛나는 풀잎의 이슬,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의 논과 밭, 명석 위에 누워서 모깃불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여름

밤하늘에 총총히 깔린 별을 헤아리던 일, 이런 牧歌的인 것, 소박한 것들이 나의 마음과 性格 形成에 重要的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 나라 어디에 가든지 그런 故鄉의 멋과 자량은 술하게 存在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자라며 느끼고 感得했던 谷城의 한 구석인 오곡마을의 風光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게만 느껴진다.

그건 나의 마음에 퇴색할 수 없이 질게 심어진 故鄉意識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나는 近來에 한 週日이면 두 번쯤은 故鄉 마을을 車窓으로 느끼며 思索하는 圈域에서 生活을 해 왔다. 그런 나의 生活相을 나는 매우 흐뭇하고 보람지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만큼 나는 그렇듯 아름답게 느끼는 시골을 故鄉으로 두고 있음을 새삼 感謝하게 생각한다.

그곳은, 착한 마음과 소박한 氣風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飲水思源이라 했다.

내가 태어난 故鄉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故鄉을 그려보며 故鄉頌을 뇌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 故鄉을 마음 속에 찬미하면서 그곳이 더 살기 좋고 보람을 잉태하는 삶의 낙원으로 가꿔지길 기원해 본다.

# 故郷을 사랑하는 마음

丁 在 鈺  
(順天道沙國民學校長)

잊어본 적 없는 내 故郷  
山과 溪谷이 많아 붙여진 이름 谷城, 小白山脈의 한 자락을 끼고 수많은 峰巒을 따라 蟾津 寶城江으로 흘러드는 40餘개의 支流 河川 沿邊에 펼쳐진 땅. 우리 祖上들이 가꾸어 놓은 우리 故郷 谷城 사람들의 슬기가 서려 있다.

나의 故郷 谷城에는 村名에 梧, 竹, 鳳字가 유난히도 많다. 梧桐이 아니면 깃들지 않으며 竹實만 먹고 산다는 鳳凰, 高潔하고 祥瑞로운 鳳凰새, 松竹같은 굳은 節慨, 淳朴하고 正義感이 強했던 우리 谷城 사람들의 氣質이 고장 山勢를 업었 으리라 믿는다.

壬亂때 義兵을 일으켜, 高敬命將軍과 함께 錦山 戰鬪에서 殉節한 月波 柳鼓老, 李

忠武公을 도와 赫赫한 功을 세운 高永豪等, 國難이 있을 때마다 忠義烈士를 輩出해 護國 反日의 氣慨를 드높여 이른바 ‘三城 三平’의 한 고장으로 불려 왔던 곳곳한 氣像을 가진 내 고장 谷城을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蟾津江 굽이굽이 펼쳐진 景觀 따라 봄철의 花煎놀이, 灼熱하는 太陽 숨막히는 무더위에 通明山 道林寺 溪谷따라 明鏡止水에 발을 담그고, 東山 나룻터 淳子江 白沙장에 덩구는 逍風客, 泰安寺 종소리를 들으며 짧은 해를 안타까와 하는 釣水輩들……이런 情景들이 明滅하는 내 故郷 谷城.

이제 半白이 된 나, 어찌 故郷을 잊을순가? 他郷에서 온갖 辛苦를 겪게 되면, 그리운 곳이 故郷山川이고 故郷人心이라. 나

를 낳아준 故郷, 낮익은 山川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祖上들의 山所는 勿論이요 일가親戚이 있고, 竹馬故友들이 살고있는 故郷을, 客窓寒燈에 감았던 눈을 뜨면 그리운 모습은 사라지고 鄉愁에 젖은 그리운 마음만 남는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

北風 寒雪에 刻苦를 겪은 軟弱한 新芽는 和風暖陽에 잎 돋아 나고 꽃 피워 盛代를 맞다가 또 늦가을 찬 서리에 落木하면 歸根한다. 動物도 歸巢性이 있다고 한다. 옛말에 '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故郷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마음을 뜻하는 말로서 여우가 外地에서 죽을 때는 제가 生長했던 언덕 쪽으로 머리를 向하고 죽는다는 말에서 생긴 말이다. 故郷을 벗어나 보아야 故郷의 그리움을 實感하고 外國에 가서야 故國을 思慕하는 切實한 느낌을 體驗하게 된다고들 한다. 이를 逆으로 생각하여 보면 그리워함은 곧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他郷에 가지 않아도 外國으로 떠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愛郷心과 愛國心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이 얼마만큼 切實한가의 程度 문제겠지만 아뭏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는 單純히 사랑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랑하는 것을 爲하여 바치려는 마음이 隨伴되는 것으로서 내 나라를 爲하여 제 나름대로의 精誠을 바치는 마음,

이것이 곧 愛郷心이요 愛國心이다.

故郷을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내 고장 谷城도 이제 많이 發展되고 變했다. 이는 우리 젊은이들이 훌륭한 祖上들의 雄志를 繼承하여 努力한 所産이다. 그러나 他地方에 比較하면 落後된 것도 許多하다. 이제부터 奮發하여야 한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으로 相扶相助의 精神을 發揮하여 長幼有序, 孝親敬老하고 郡民全部가 團結하여 祖上으로부터 물려 받은 이 山川 名勝 古跡을 잘 管理 保存 發展하기 爲하여 正直과 秩序를 앞세워 힘써 일하여 福된 谷城樂園을 建設하여야 한다.

福은 檢素에서 생기고, 德은 謙讓에서 생기며 大道는 安定에서 생기고, 命은 和暢에서 생기며, 근심은 愛慾에서 생기고, 災殃은 物慾에서 생기며, 허물은 輕妄에서 생기고, 罪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했다. 눈을 操心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며 입을 操心하여利롭지 않는 일에 부질없이 是非치 말고, 恒時 참되고 너그러운 말을 할 것이며 몸을 操心하여 그릇된 者를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우리 모두 熱心히 살아, 보다 先進된 鄉土, 보다 發展된 고향을 만들어 우리들 後孫에게 값진 遺産으로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사랑의 가치관

谷城 中央國民學校 教師 崔 鍾 烙

인간은 누구나 존경과 신뢰감 속에서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진실한 인간애가 싹튼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애정의 욕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활의 생동감이 흐르기 때문이다. 애정의 욕구가 충족될 때 생명의 고귀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주는 것보다도 받기만을 원한다. 그래서, 타산으로 나가는 경향이 짙은 현실이다. 주고받는 교류의 밀도가 클 때 사랑의 가치는 고귀하고 변화를 준다. 청춘남녀간의 애정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열이 숨가쁘게 오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랑이다. 부모자식간의 사랑은 조건없이 주는 식의 사랑이다. 스승과 제자간의 진실한 사랑은 예전에 비해서 찾아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나가려는 의식 구조의 상

황인지도 모른다. 조건이 선행된 사랑, 이해 타산의 계산적인 사랑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특히 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의 경향을 사회의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수나 석가의 사랑과 자비는 구원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성인(聖人)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평등과 박애의 정신이 서려 있기 때문에 신성하고 고귀한 사랑으로 그 빛과 향기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찌기 그리스인들은 철학과 종교의 형이상학에서 사랑에 대해 많이 노래하였다. 또한 위대한 사상가시인 예술가들도 사랑의 미학(美學)을 오늘날까지 노래하고 있다. 유행가의 가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낱말이 사랑이다. 대중가요에서 아무리 사랑이란 노래를 목청이 터지게 불러도 듣기에 싫

증이 나지 않는다. 사랑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神)과 인간 사이의 종교적인 사랑을 아가페, 젊은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하고, 넓은 의미의 인간적인 우정을 필리아라고 한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은 빵만 먹고 살 수 없으며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 고등동물이다. 빵과 사랑을 제대로 먹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빵은 넓은 의미의 의식주 생활을 말하며 육체의 에너지원이 된다. 사랑은 정신적인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이 상호 건전할 때 우리는 활동적인 인간, 보람찬 생활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체와 정신의 함수관계에서 언밸런스가 형성될때 우리는 치유할 수 없는 병리현상에 빠지게 된다. 육체적인 영양실조와 정신적인 사랑의 결핍증은 항상 예고없이 찾아 오게 된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종종 체크 진단하지 않으면 예상할 수 없는 불행과 슬픔의 늪에 빠지게 된다. 애정이 결핍될 때에 많은 병을 가져오게 된다. 즉 초조, 불인, 고독, 자폐증, 슬럼프, 노이로제, 가출, 범죄 등 사이코 드라마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이기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인간사회에 대해서 무분별한 사고력과 판단력으로 폭력의 충동심이 생겨서 결국 반사회적인 범죄자의 비행을 자행하는 버림받는 인간으로 전락되기 쉽다. 반면에 과잉보호적인 애정은 의존심을 조장하고, 자주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

며,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열악한 인간이 되기가 쉽다. 문제는 애정의 중용지도(中庸之道)이다. 목표 지향적인 인간형으로 인격을 형성시켜 주기 위한 꾸준한 애정의 보살핌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싶다. 윤택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소녀들이 성장기에 갑자기 가출하여 사회에서 비행을 일삼고 방황하는 탈선된 비극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일선교육의 현장에서 고아가 아니면 가정 불우아가 급우들의 학용품과 금전을 서슴없이 도둑질하는 도벽심을 꾸짖기 전에 동정심이 생기곤 하여 더욱 좁은 가슴을 서글프게 해 주는 사례가 있다. 과연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냉정하게 심성(深省)해 볼 생활의 명제임에 틀림없다. 일찌기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이라고 갈파했다. 사랑을 떠나서 행복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다. 인간의 신체의 주성분은 물(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인간의 삶을 보람있게 엔조이 시켜 주는 에너지원이 된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마치 향기가 없는 꽃과 같은 것이다. 사랑이 결핍된 잡초같은 인생은 허무하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노래했지만 그중에서도 사랑의 복음을 절실히 노래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대 지고(至大至高)한가를 웅변해 주고 있기 때문

이다. 사랑에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남녀간의 동적인 뜨거운 애정 부모형제간의 혈육의 정, 부부지간의 천생연분의 사랑, 친구지간의 우정과 우애, 사제지간의 사랑, 사회와 국가에 대한 애향심과 애국심, 문화 예술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동포애와 인류애, 하느님에 대한 사랑 등 수없이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남녀간의 애정을 우리는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알고, 매혹과 매력을 느끼며 호기심에 불타곤 한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이지만 사랑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현대적인 차원에서 찾아서 강조하고 싶다. 사랑은 일반적인 통념으로서 아름다운 정서이며, 감미로운 감정의 정표인 것이다. 사랑이 많고 클때 인생은 창조적인 활동력이 발산하게 된다. 단순한 사랑의 존재는 어떤 생산적인 변화와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사랑의 동기는 맨 처음 관심에서 부터 나오게 된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 향기와 빛깔이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향기와 빛깔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된다. 꽃과의 대화, 꽃의 재배, 관리 등을 통해서 매사에 관심을 갖는 태도가 생길 때 사랑은 움트게 된다. 관심도가 사랑의 밀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관심이란 말은 사랑과 불가분의 함수관계가 성립된다. 주마간산격의 무관심한 태도는 커다란 생활의 암적인 요소가 된다. 적극적인 관심도는 사랑의

정도를 좌우해 준다. 사랑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 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책임이란, 상대방과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것을 말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건없이 사랑을 베푼다. 그러나 성장기부터는 조건 일변도로 사랑을 베푼다. 공부를 잘하면 뭘 사주겠다는 식의 조건부적 급부행위와 같은 자녀교육관은 생각해 볼 문제다. 핵가족제가 제도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부모자식간의 무책임한 태도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을 교단에서 눈여겨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 건강, 생활지도, 결혼 등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 주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볼 문제이다. 또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상사의 안일 무사한 경영관리의 태도는 부하들의 개인성장에 커다란 저해요소가 됨을 지적 안할 수 없다. 분명히 현대인들은 책임과 의무감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리와 자유만을 앞세우려는 타성에 젖어 있는 인상이 풍긴다. 미래에 대한 설계의 책임의식은 자아실현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된다. 무책임한 사랑은 거짓의 사랑이며 무가치한 작태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책임있는 사랑이 선행될때 사물에 대한 사랑도 크게 작용하게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을 억압 지배 강요,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서로 존중 존경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의 심도는 행복한 생활을 기



---

약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인격과 생명과 자유와 권리 등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많은 인상을 주곤 한다. 선후배간의 존경심, 직장에서의 상하간의 존경심, 부부간의 존경심, 남녀노소간의 존경심 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의 척도는 존경심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진실한 인간애를 발견할 수 있다. 권위나 금력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유아존식 고자세는 금물이다. 사랑이란 것은 자기 중심보다도 남을 위한 이타주의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존경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배제할 수 없다. 사랑이란 이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로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란 참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민, 기쁨과 슬픔 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오만불손한 자세와 교만한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을 진실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매사를 아랫자리에 서서 남을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생활인의 태도가 아쉬운 현실이다. 사랑이란 주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줄 때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과 행복이 생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처럼 상대방에게 조건없이 주어야 된다. 불우한 이웃, 동료, 친구, 제자, 상사, 부하등 만민에게 사랑을 줄 때 인간애가 싹

트고 동포애와 인류애가 생기게 된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 책임을 느끼는 것, 이해하는 것 주는 것이란 명제를 깊이 알고 매사에 의욕과 충실감을 갖고 살아 가야 된다. 사랑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극치의 경지에 도달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피상적이거나 무책임해서는 안된다. 사랑은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악용해서도 안된다. 사랑은 순수하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치를 측정해 준다. 사랑은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켜 주는 위대한 힘을 준다. 사랑이란 단순히 이성간의 애정으로 끝나선 안된다. 가정과 사회 국가 등 차원 높은 사랑의 가치관을 재조명시켜 보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어디서나 어느때나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갈때 혼탁한 우리 인간사회는 밝고 명랑해지리라 믿는다. 오늘도 사랑의 미로(迷路)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한마디의 따뜻한 대화와 사랑의 스마일에 인색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

# 鄉土文化發展

金 學 瑾

(順天市教育廳獎學士)



## 1. 鄉土文化的 定義

鄉土의 自然과 歷史와 社會를 背景으로 形成된 文化이다.

人間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父母와 家族으로 부터 言語, 生活을 익히고 傳統的인 基本教育을 받게 되며, 점차 자라면서 이웃과 마을, 鄉土에서 自然條件의 影響을 받으면서 다시 말한다면 鄉土文化意識의 体温속에서 한 人間이 成長되며 理想이 設定되고, 人生觀, 價値觀, 宇宙觀까지 열게 되는 바탕이 되는 곳이 鄉土이다.

모든 文化的인 創造는 生命的인 리듬이 통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湖南地方의 고유 정신의 원형을 살리고 있다는 판소리 형성 과정을 보기로 든다면 巫歌의 長短과 시나위(南道巫樂)의 성음과 범패(梵唄)와 歌曲이 綜合的으로 時代의 흐름에 따라 復合的으로 溶해되어 形成되었다고 한다.

鄉土文化는 傳統文化의 가장 核心的인 原形이 되며, 鄉土文化의 原質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sup>1)</sup>

1) 丁 採均: 鄉土文化運動의 實際 鄉土文化 7 輯 P. 53

## 2. 郷土文化 發展의 沮害要因

### 1) 日帝의 民族文化 抹殺政策

日帝의 우리 民族 抹殺政策으로 傳統 文化에서 大衆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 2) 歷史意識의 缺乏

거센 外來文化의 挑戰과 衝激을 받았을 때 應戰을 加速化하고 交互的 位置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 3) 事大主義 思想과 外來文化의 洪水

學者나 知識人들의 主体意識의 缺如와 外來文化에 對한 無批判, 제대로 受容할 態勢를 갖추지 못한 채 先進外來文化 洪水로 우리 郷土文化는 짓밟히고 말았다.

### 4) 都市化와 急激한 工業化

都市化와 工業化 趨勢는 地域 社會에 바탕을 둔 郷土文化 形態를 변질시키고 이를 輕視하는 風潮를 낳았다.

### 5) 行政府 文化政策 未洽과 專門要員의 人力不足

①文化財 補修等 專門的인 指導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채 실시되어 오히려 原形을 훼손시킨 경우도 있었다.

②文化, 藝術 擔當職 公務員 專門人力 不足

③시멘트 文化化로 固有文化 喪失 招來

④단편적인 안목의 개발과 무리한 새 마을 사업 등으로 향토문화재 부분적 훼손

## 3. 郷土文化 繼承의 必要性

우리 나라 經濟成長은 最近 1960年代以

後 30餘年 동안 괄목하게 發展되어 世界先進國의 문턱에 進入되었으나, 精神의 文化는 그를 뒤따르지 못하고, 침체하여 많은 問題를 파생시키고 있다.

現代社會의 一般的인 特徵인 都市化, 大衆媒體의 發達로 巨大한 組織이 劃一化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全國이 1日生活圈이요 머지않아 世界가 1日生活圈으로 다가 오고 있다.

우리 民族의 자랑인 單一民族, 單一言語, 같은 生活習慣을 갖고 마을 또는 고을 단위의 相扶相助의 美風이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고, 大家族制度에서 核家族制度로 바뀌어 祖上을 섬기고 父母를 섬기는 思想마저 희박해지고 있어 마침내는 自己 뿌리와 故郷마저 잃어버리어 愛郷精神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現代 社會를 냉철히 살펴보면 自己만이 잘 살면 된다는 利己主義에 黃金 萬能主義 때문에 人間의 本性을 잃은 사람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으니 生活의 豊饒에 비하여 精神世界의 貧困을 가져와 社會問題化 되고 있다.

저 바다 건너 日本은 70年代에 西歐 文物의 一方的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日本精神의 原質을 찾기 위해 努力하여 成功했다고 한다.<sup>9)</sup>

日本 大多數의 宗教인 神道를 숭상하고 各地方마다 祭가 國民의 관심과 聲援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마다 마을誌,

2) 郷土文化運動의 主体와 大衆方案, 郷土文化 6輯 P. 35

邑誌 등이 編纂되었다 한다.

西歐의 여러 나라들도 저마다 鄉土性을 가지고 있으며 文化的으로 뒤떨어졌던 獨逸이 프랑스 文化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國民精神 運動이 오늘날 獨逸의 힘이 되었다고 한다.

先進 美國 사람 중에서도 知識人이나 指導層의 사람들은 자기 家系의 뿌리를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族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한다.

鄉土라함은 나를 키워 주고 가르쳐 준 原初的인 면서도 나의 理想이 孕胎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故鄉을 잊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잘 살게 되거나 成功을 하게 되면 故鄉을 찾는 사람이 많다. 특히 在日교포들의 鄉愁와 愛國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교포 2세, 3세 일수록 祖國에 대한 관심이 희박함은 좋은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변의 흠어져 있는 文化的 遺蹟이나 마을 유래, 고을의 내력, 文獻資料, 口碑文學 資料, 民俗各種 資料와 自然 모두를 가능한 保存하고 愛護하는 길만이 愛國愛族의 捷徑이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과거의 文化 社會的 遺物, 遺蹟을 통해 祖上의 일을 되찾고 그 時代의 찬란했던 文化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내일의 民族文化 創造의 바탕을 삼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본다.

내 고장에 면면히 흐르는 鄉土精神을 찾기 위한 運動이 積極的으로 展開되고 繼承 發展되어야 할 것이다. (선비의 정신, 忠孝精神, 勉學風土, 文化藝術, 産業工藝技術 等)

한 民族과 한 時代에 獨創的인 文化를 꽃피우기까지는 偶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恒時 國民의 自我意識이 끊이지 않고 國民精神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 『國家는 傳統文化的 繼承, 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sup>3)</sup>

(참 고)

• 우리나라 俗談에 「고기도 저 놀던 물을 좋아한다.」

〈송어의 回歸性〉

•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언덕을 향해 돌리고 죽는다. (首丘初心)

• 胡馬는 언제나 북쪽 바람을 향해 서고, 남쪽땅 越나라에서 온 새는 나무에 앉아도 남쪽으로 向한 가지를 골라 앉는다.

〈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古詩)〉

• 失鄉과 祖國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李相和의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 줘

나는 남부에서 나고 남부에서 살고 남부에서 일했다.

나는 남부에서 죽고 싶으며

거기에 매장되고 싶다. (G.B와싱턴)

#### 4. 鄉土文化 資料 發掘

3) 李 乙浩: 韓國傳統文化와 湖南教育的 照明 80.12.P.10

1) 資料 領域

- (1) 精神的 資料
- (2) 文學 資料(文獻中心)
- (3) 文化 遺蹟 및 文化財 保護 對象
- (4) 歲時風俗
- (5) 口碑文學 資料
- (6) 自然動植物 保護對象
- (7) 其他

2) 發掘調查 內容

- 自己 家系 찾기
- 마을 유래 찾기
- 자기 고장 歷史
- 자기 고장 傳統
- 鄉校, 書院, 學校찾기
- 자기 고장 美風, 美談 찾기
- 歲時風俗 찾기
- 자기 고장 人物찾기
- 文化財 찾기
- 民俗資料 調査
- 자기 고장의 自然保護 對象찾기  
(천연기념물, 희귀동식물, 자연경관)
- 자기 고장 자랑거리 찾기
- 자기 고장 典籍, 各種 圖書및 資料  
찾아 모으기
- 傳來俗談 調査
- 自己 고장 방언찾기
- 자기 고장 服飾類 調査
- 鄉土 傳來 飲食類 調査
- 鄉土 産業 機具, 生活道具

- 婚禮, 喪禮, 祭禮
- 傳來, 巫俗, 堂山制, 洞祭, 時祭,
- 民俗 마을, 대상 마을 調省
- 其他

5. 鄉土文化 發展運動 展開

鄉土文化 運動은 愛鄉과 和合의 廣場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1) 文化院 中心, 文化 活動의 活性化
- 2) 鄉土文化 振興委員會 組織 活性化
- 3) 鄉土館 設立 運營의 合理化  
(圖書및 非圖書 資料, 民俗資料 保管 等)
- 4) 鄉土資料 集大成: 鄉土誌 發刊
- 5) 郡廳 文化公報室 專門委員 配置(촉탁사무관 대우)
- 6) 鄉土文化 基金造成
- 7) 各級 教育機關에서 鄉土教育 實施
- 8) 各 機關에서의 行政的 支援
- 9) 各種 社會團體 積極呼應(宗教 團體 包含)
- 10) 民俗祭典(文化 體育의 날) 行事實施  
(每年) 〈民俗놀이 再現및 繼承, 有功者 表彰〉
- 11) 文化財 保護運動에 모든 사람의 積極 참여 유도
- 12) 내 고장 가꾸기 범국민운동 전개
- 13) 내 고장 자랑 대회 開催(文化院 主管)
- 14) 各種 文化藝術活動 活性化

谷城文化院 主催

# 敬老孝親 글짓기大會



사라져 가는 조상의 전통미덕을 오늘에 되살림으로써 산업화 물결로 혼탁해진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코자 글짓기 대회(85. 12. 19) 개최했던 바 군내 초·중·고 별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을 초·중·고별로 뽑아 실는다.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는 경로효친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절교실 운영 등 경로효친 사상 양양에 좀더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 **고등부 금상**

#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자

서        함        식  
(곡성종합고등학교 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희망이 있다. 올해 못한 일, 잘못된 일, 그리고 잘한 일들을 내년에는 더욱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겠다. 그리고, 올해 못한 효를 실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 보고자 한다.

이 세상에는 없다, 부모없이 태어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들의 뿌리가 있다. 하찮은 한 떨기의 풀도, 개미 한 마리도 그네들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뿌리는 부모님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선조가 되리라. 우리는 선조님들께, 부모님들께 감사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부모가 아니면 생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질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부모없이 자라난 사람 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어 훌륭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

들은 보지도 못한 부모였지만, 그들로부터 훌륭한 자질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부모에 대해 무엇인가 불만에 가득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제력이 없다, 남의 부모들과 같이 배움이 없다, 사회적 지위가 좋지 않다, 내외 간에 싸움을 한다, 사랑이 부족하다 등등 그 이유는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렇다고 우리마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부모가 못 배웠으니까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자. 사랑이 부족하다,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인간을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불만을 승화시켜버리자.







이와같은 연유에서 부모와 조상을 지극히 섬겨야만 하는데도 요즈음 보기가 힘든 것이 경로와 효친 생활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사상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인을 외면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려는 못난 사람들을 보게 된다.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맺은 고귀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자기도 자식을 낳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애를 태울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부모님 모시는 일을 천도(天道)로 여겼고, 몸소 실천에 옮겼다. 그 예로 혼정신성(昏定晨省)이란 말도 있는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받들고 있어 저녁에 잠자리 돌봐드리는 것이 혼정(昏定)이고, 아침 문안을 드리는 것이 신성(晨省)인데,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는 예절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혼정신성의 절차를 밟는 자식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아마도 부모가 자식에게 혼정신성을 베풀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효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대에서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다. 온갖 행실의 근원이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몇몇한 도리인 효도를 하자.

요컨대, 우리 모두 튼튼한 몸을 가꾸고 착한 행실을 닦으며 제 할 일을 다 하는 훌륭한 아들 딸이 되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하는 길이다.

■ 중등부 금상

가정에서의  
경로효친

오 현 순  
(곡성여자중학교 2년)

우리 마을에 한 할머니가 외로이 홀로 살아가고 계신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다 같이 즐겁게 살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할머니만 남겨두고 가족들이 이사를 가버렸다. 그래서 할머니는 몇 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계신 것이다.

마을 어른들에 의하면 할머니와 며느리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며느리가 이사가기를 원하여 할머니만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렸다고 한다.

조금만 할머니와 며느리가 이해하며 생활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혼자 쓸쓸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젠 나이가 들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여 같이 옆방에서 살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는 실정이다. 80이 넘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자기의 친어머니 모시듯 언제나 열심히 공경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마을 어른들의 칭찬을 듣고 찬사를 받고 계신다.

라서 할 텐데...

그런식으로 세상의 일이 되어 간다면 불쌍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웃어른을 공경하는 버릇을 길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며느리는 할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는데 며느리도 아닌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열심히 공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 늙게 되면 할머니와 똑같이 될텐데 우리의 선배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기에 우리의 후배들도 따

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진다. 친구들이 할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불친절할 때 왜 그들은 불쌍하신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들로 인하여 불행해서는 안 된다.



가끔 TV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평생 동안 보살펴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단지 사회의 보상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봉사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보상이나 명예를 바라다면 벌써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됐을 것이다. \*

그런데, 아직도 계속 그 노인을 공경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는 특별한 보상도 명예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럴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인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도와 드려서 기쁘게 해 드리면 그것이 곧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고 공경하면 먼 훗날 내가 늙어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나의 자손으로부터 잘 공경받게 될 것이다.

내가 늙었을 때 공경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뜻있게 보람있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인을 잘 공경한다면 우리 사회는 언제나 기쁨만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라는 커다란 곳보다 가정이라는 조

그마한 곳에서부터 노인을 공경하며 생활하면 반드시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으로 노인을 공경하며 사랑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 마을의 아주머니는 경로 효친을 실천하는 본보기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아주머니처럼 경로 효친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초등부 금상

# 웃어른 공경

정 민 주  
(곡성중앙국민학교 6년)

요즈음 며칠간은 영하의 날씨 탓에 따뜻한 아랫목으로만 가고 싶은 계절이다.

며칠 전 일요일이었다.

친구의 생일 초대로 은숙이와 함께 수진이 집으로 향했다. 일요일인데도 버스 정류장은 어느 때보다는 한산했다. 버스 정류장 앞의 상점도 비교적 한산했고 난로연통에선 뿌연 연기만이 나오고 있었다. 뿌연 연기를 보며 은숙이는

“저건 공기 오염이야. 저런 연기를 내지 않는 연탄 난로는 없을까?”

은숙이의 우스운 말에 잠시 웃다가,

“은숙아 저 연통에서 나오는 연기는 우리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이 지낼 수 있게 열을 내 주잖니? 그러니까 너는 그런 불평할 자격도 없어, 알았니?”

은숙이는 조금 토라지다가 싶더니 이내 입가에 웃음을 담고 맞은편 거리를 가리키며,

“애, 저 할아버지들 좀 봐. 추우시지도 않나? 왜 따뜻한 아랫목을 놔두고 추운데 거리에 앉아 계시니?”

그 말을 들은 은숙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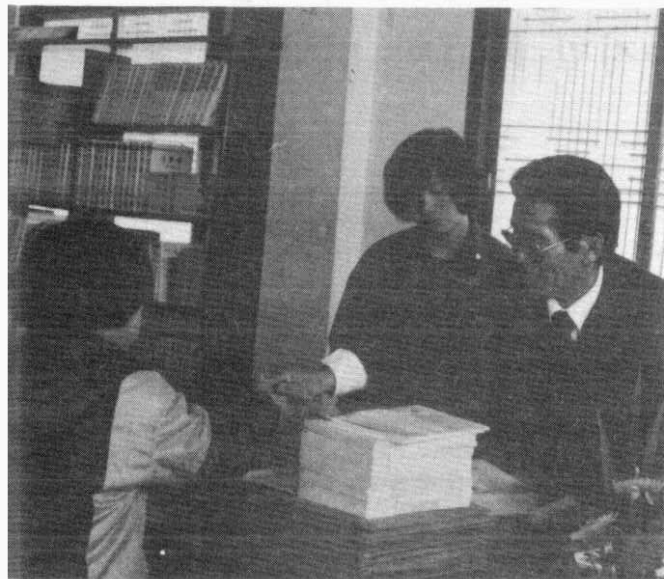
“나는 그렇게 모시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셔서 모시지 못하는데 아뿔튼 그런 자식들은 자기가 늙어서 그런 일을 당해 봐야 알거야!”

정말, 추운 길목에 앉아계시는 할아버지들의 눈빛은 처량하기만 했다.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님께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 부모님을 양로원, 기도원 등으로 보내 자기들만 편히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 조상님들은 웃어른 모시기를 하늘 모시듯 모셨다는데……. 우리 조상님들의 덕분으로 이만큼의 나라 성장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이 한 편의 글이 여러 어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거리에서 처량한 모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이 요즈음엔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 글을 쓰며 난, 절대로 부모님을 거리로 나가시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며 의무라는 것을 알았으며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장래 나도 할머니가 되면 추한 모습이 두렵기 때문이다.



“글쎄, 아 그렇다. 은숙아, 너 왜 저런 할아버지들 같은 분 못 봤니? 집에 계셔 봤자 답답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심지어 손자, 손녀들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냄새가 난다고 피한다지 뭐니? 문제야!”

# 義節의 고장 谷城

金 學 瑾

谷城은 地名이 말해주듯 山이 많고 물이 맑아 風景이 아름다우니 포근한 人心이 감돌고, 性格 또한 柔順하지만 剛直한 면을 지니고 있다.

## • 포근한 人心이 감돌며, 義節이 繼承되는 곳.

故郷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山紫水明 하고, 포근한 人心이 감돌며, 義節이 繼承되는 곳, 찌든 가난과 싸우는 순박한 사람들을 聯想하게 된다.

谷城은 時代에 따라 光州, 羅州, 昇州, 南原 등에 일시나마 예속된 바 있으나, 1914年 이후 1 邑 10 個面에, 9 만여 명이 현재 살고 있다.

光州, 南原, 求禮 사이에 끼어 交通의 要衝地는 될지언정 市場손님은 南原場으로 빼앗기고, 觀光손님은 求禮로, 其他 子女教育 및 主要 生活必需品 購入은 光州로 빼앗기고 있으니,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나 보다.

谷城은 地名이 말해 주듯, 山이 많고 물이 맑아 風景이 아름다우니, 포근한 人心이 감돌고, 性格 또한 柔順하지만 剛直한 면을 지니고 있다.

흔히들 谷城은 三城三平中の 하나에 든다 하여 人心이 사나운 것처럼 잘못 전해

• 「三城三平」은 자기네들  
에게 抵抗한다 하여 倭  
놈들이 붙여 준 이름

지고 있으나, 倭놈들이 자기네들에게 끈  
질기게 抵抗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니  
던가? 그것은 곧 谷城이 義節의 고장임을  
말해 줌이다.

壬辰倭亂時 月坡 柳彭老將軍과 義馬塚  
의 이야기, 韓日合邦을 보고 悲憤慷慨하  
여 絶死한 小松 鄭在健선생과 雪樵 金克明  
선생, 그리고 3·1 運動가 申泰允선생, 19  
40年 日帝下 創氏改名에 울분을 참지 못하  
여 飲毒自決한 石田 柳健永선비 등 수많은  
憂國志士·烈士를 輩出한 고장이기도 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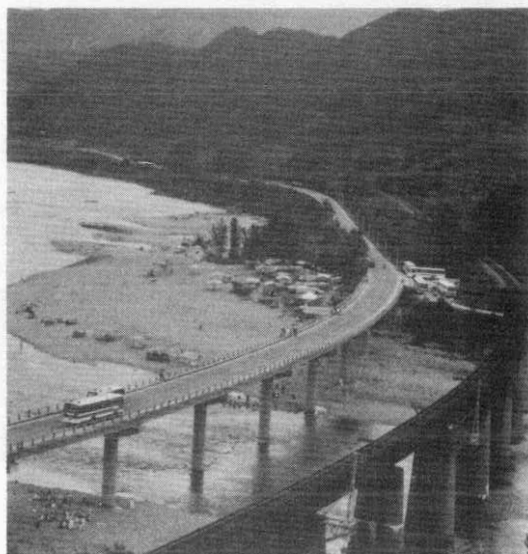
• 4大 觀光地, 3大 寺刹,  
8大 名山の 아름다움.

이와 함께 谷城은 수많은 名勝觀光地 가  
있고, 특히 4大 觀光地, 3大 寺刹, 8大  
名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鴨綠 觀光地

蟾津江 上流와 寶城江 下流가 合流 하는  
地點.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흘러 오리  
떼가 많이 棲息하였다 하여 鴨綠이란 이름

• 蟾津江 銀魚는 임금님께  
올렸던 進上의 하나.



鴨綠 遊園地

半月橋와 鐵橋가 나란히 位置하여 있고 蟾津江과 寶城江이 合流하는  
地點에 넓은 백사장이 은빛 모래로 이루어져 天然觀光地의 面貌를 갖춘  
遊園地로 여름에는 수많은 遊覽人衆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地域에서 4~9월에 棲息하는 銀魚가 특히 有名하여 많은觀  
光客의 脚光을 받고 있다.

이 붙여졌다. 公害 없는 물에만 살고 있는  
銀魚, 쏘가리, 黃魚, 이 중에도 특히 銀魚  
는 임금님께 올리는 進上品의 하나였다.

## 우리 고장의 예와 오늘

봄,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江邊에서 투망으로 잡아 들갯잎에다 초장 마늘 조각을 끼어 넣어서 먹으면 그 맛 또한 天下 一品이었던만, 지금은 上流에 시멘트 工場이 생긴 후로 귀해졌다고들 한다. 文堂 崔南善이 「尋春巡禮」에서 禮讚한 바 있다.

다. 또한 金秀甫가 端宗을 그리며 세운 拱北壇이 있으며 그 아래 둥둥바위가 있어 낚시터로 有名하다.

江邊 新里, 大坪, 梧枝里는 우리가 어린 時節만 해도 수백 개의 원두막이 넓은 들판에 군데군데 서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까치참외, 갈참외, 수박은 별미였으나, 지금은 옛정취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 ○清溪洞과 東山 白砂場

谷城邑 新基里 玉女峰을 넘어서면 清溪洞 골짜기가 나온다. 이곳은 水石이 아름답고, 自然景觀이 빼어나며, 東山里 白砂場은 여름철이면 주로 婦女子들이 수명씩 모여들어 모래뜸질(砂浴場)을 하는 장소로 이름이 높다. 東山亭에서 본 전망이 아름다우며, 江 건너는 옛날 流配地 梅島가 있



1,000町步 矮性사과 造園으로 100億 원 所得增大

氣候與件이 가장 適合한 高所得 왜성 사과를 特産物化 하기 爲하여 78년부터 植栽 80年代 中半까지는 第2의 大邱로 浮刻될 것으로 豫想된다.

### ○泰安寺

鴨綠에서 6km쯤 寶城江 물줄기를 따라 西쪽으로 오르노라면 東溪橋가 있다. 옛날



에는 나룻배로 渡江한 곳이다.

6 km 쯤 비포장도로를 가면 申崇謙 將軍의 靈績碑가 세워진 元達里에 이른다.



泰安寺 (指定以外の 文化財 第31號)

新羅 景德王 元年(742) 何許三位神僧이 泰安寺를 創建하고 高羅 太宗때 廣慈禪師가 金堂을 重創하였는데 6·25 때 大雄展이 全燒된 것을 1969년에 重創하여 一名 泰安寺라고 한다. 이곳에 寶物 273號 寂忍禪師照輸清淨塔과 274號 廣慈大師塔, 275號 廣慈大師碑가 現存하고 있다.

이곳에서부터 2 km 쯤 되는 山寺의 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소나무숲과 雜木

이 울창하여 千古의 原始林을 聯想시킨다.

맑게 흐르는 시내 위에 통나무로 걸쳐진 凌波閣은 3 칸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 밑은 2段의 架構 十字形으로 木林을 맞붙였다. 이 木橋도 우리 나라에서 보기드문 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영조 13年(1737年) 創建 이후 수차 重修하여 現在 建物を 1백 20여년전에 重修한 다르다. 이 은



觀音寺 圓通殿

관음사는 백제 汾西王 3年 聖德보살이 創建하였다고 傳하며 圓通殿은 6·25 動亂때 소실되었다가 1954년경 再建 되었다.

## • 觀音寺는 沈清傳 根源說 話와 관계있는 佛像保存

觀音寺와 沈清傳 根源說話는 무척 흥미롭다.

## 우리 고장의 예와 오늘

觀音寺는 梧山面 聖德山下에 있는 절로 百濟 10代 분서왕(312年) 때 성덕보살이 낙안포(별교)에서 금동관세음보살상(국보 214호)을 모셔다가 절을 세웠으나, 6·25때 국보 273號인 圓通殿이 타고 그 안에 있던 國寶 214號도 녹아 머리 부분만 남아 있다. 이 觀音像이 沈淸傳으로 윤색되어 小說化했다고 傳해지기도 한다. 지금은 절 근처에 韓蜂을 많이 기르고 있으며, 梧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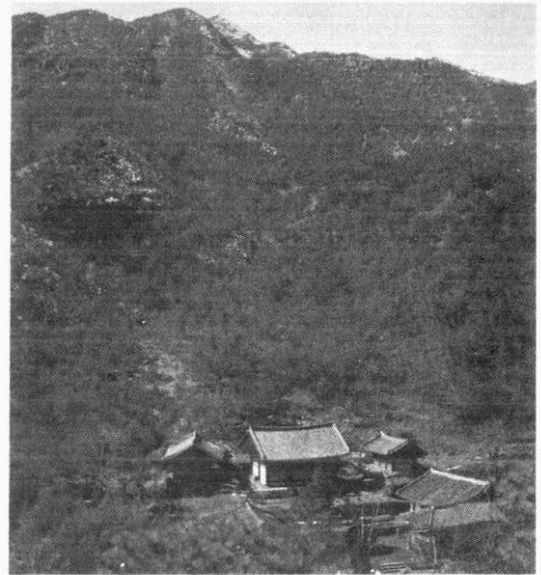


梧山 柯谷리에 있는 石造物로 된 地下女將軍

面 일대에는 오동나무 단지라 유실수, 경제림을 조성하여 앞으로 和順 温泉이 본격 개발되면 이곳까지 觀光圈으로 그 영향이 미치리라고 住民들은 기대에 부풀고 있다.

### ○道林寺와 盤石

노령산맥 끝줄기가 꺾여 휘면서 動樂山 聖出峰을 主峰으로 아담하게 들어앉은 道林寺. 谷城邑에서 2 km 남짓 光州 쪽으로



道林寺(指定以外の 文化財 第30號)

新羅 眞平王때인 582年頃 神德王后가 이 절에 와서 절 이름을 神德寺라 하였는데 新羅 武烈王 7年(660) 元曉大師가 四佛山 華嚴寺로 부터 移住하여 그후 道林寺로 稱하였다 한다. 이곳 道林寺는 우거진 숲속에 넓은 盤石으로 形成되어 사시사철 觀光客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높이 10m의 人工瀑水도 設置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다가 動樂山 兄弟峰을 向하여 걷노라면  
길 옆 소나무숲과 열 여섯 굽이 溪谷이 나  
타난다.

• 道林寺 溪谷 盤石에는  
수많은 詩人들의 詩句가  
새겨져.

골짜기 바닥을 따라 평퍼짐하게 드러 누  
운 마당바위. 온통 盤石으로 묻혀 있는 시  
내에는 銀玉같이 맑고 깨끗한 玉水가 흐른  
다. 溪谷 위에는 나무와 나무가 머리를 맞  
대어 숲의 터널을 이루고, 朱子의 詩를 비  
롯하여 수많은 詩人들의 詩句와 名句가 盤  
石과 돌에 새겨져 있어, 先人들의 風流를  
느낄 수 있다. 비록 人工瀑布水이기는 하  
지만, 시원스럽게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  
어 우리의 땀을 식혀주곤 한다.

道林寺에서 약 2 km 거리에 있는 神仙바  
위는 집채만큼 크고 평평한데, 옛날에 하  
늘나라 神仙이 놀았다고 하며, 孤雲 崔致  
遠선생이 修道하였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날이 가물 때, 婦女子들이  
바위에 放尿를 하면 怒한 神이 비를 내리



어 바위를 씻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玉빛와 天光湖



玉果鄉橋(指定以外の 文化財 第36號)

朝鮮 英祖32年(1757) 玉果 儒林들에 의해 建立  
된 것이며 明倫堂은 正面 五面, 側面 2間의 2層  
맞배 瓦家로 옛날 儒林들이 모여 經文을 研究한 곳  
으로 알려져 있다.

玉果 天光湖 글씨는 朝鮮 宣祖 때 白湖 林梯의 親筆이라 하며, 이 天光湖는 朝鮮 朝 房玉精이란 玉果縣監이 妓生 鷺洲仙과 뱃놀이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강감찬 장군과 符籙 이야기, 玉果縣監 魏伯珪와 개구리 符籙이야기가 傳하여 온다.

○돌실나이

돌실(石谷, 玆實) 麻布는 지금도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옛적에는 豊年을 祈願하는 行事로 7月 百中을 전후하여 全國의

• 돌실나이 金點順氏는 人間文化財 33號로 지정돼

장사들이 麻布를 걸어놓고 씨름판을 벌이기도 했다. 石谷面 竹山里 돌실나이 金點順氏(인간문화재 33호)를 배출한 有名한 돌실마포는 멀리 濟州, 木浦, 海南 등 南海岸 巨商들이 모여들 정도였었다.



女恨千年的 細布 谷城 돌실나이

「부티허리 두른양은 만첩중산 높은봉에 허리안개 두르는듯 봄이라고 나는양은 칠년대한 가무름에 물만먹은 외기러기」  
喜悲哀樂이 응결 되고 恨맺힌 生活이 漂白된 내방문화의 한 장르 돌실나이 技能保有者이자 無形文化財 32號인 金點順女史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배워 平生을 닦아온 이技能을 이제 조카며느리에게 傳承시키리라 三伏의 더위도 잊고 길쌈노래를 흥얼대며 바디를 치고 있다.

# 谷城郡觀光案内圖



## 編輯後記

• 文化란 아무리 많은 努力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 成果가 即時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 物質的인 利益을 주는 것도 아니다.

文化는 豪華燦爛하게 自身을 드러낼 줄 모르며, 현란한 律動과 달콤한 맛으로 誘惑할 줄도 모른다. 오로지 빈 곳을 默默地 채워 갈 따름이다.

그러므로 當장 代價가 주어져야만 滿足해 하는 大部分의 現代人들에게 文化가 外面 當하는 것은 어쩌면 當然한 일인지도 모른다.

• 그러나, 우리의 文化는 半萬年의 歷史를 지켜 온 뿌리이며, 지금도 우리 民族의 얼을 지켜 가고 있는 바탕인 것이다. 文化를 育成 發展시키는 일은 그러므로 民族의 얼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일이며 우리의 生存을 可能케 하는 뿌리를 가꾸는 일인 것이다. 이 時代의 文化暢達施策이 強力히 추진되어야 함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重要性을 띤다.

創刊號를 꾸미면서, 이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切感했다. 첫 선을 보이는 일인 만큼 잘 꾸며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은 해 보았으나 너무나 未洽한 점을 솔직히 是認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俗談에 조금은 위로를 느끼면서, 다음 호는 더욱 잘 꾸며 볼 것을 다짐한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玉稿를 執筆해 주신 여러 어른들께 다시 한 번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玉稿를 주셨는데도 紙面과 編輯上 다음 호로 넘어가게 된, 많은 분들께는 罪愆한 마음을 禁할 길이 없다.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란다.

• 다음 호 發刊을 위해서 原稿를 모집한다. 故鄕의 文化에 關聯된 內容이면 무엇이든 환영한다. 보다 알찬 本誌가 될 수 있도록 諸賢의 적극적인 協調를 期待해 마지않는다.

(金吉榮)

본지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출판비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of

내고장 谷城  
創刊號  
(非賣品)

1985. 12. 20 印刷

1985. 12. 25 發行

發行處：社團法人谷城文化院

發行人：金吉榮

編輯人：谷城文化院編輯委員會

印刷處：라인원색

(22-1443)